연합부 모집중

대경여대협 각부학교

장 입 생

치열한 삶을 고민하는 그대를 만나고 싶습니다.



♥♥♥♥♥♥♥ 여는 시 ♥♥♥♥♥♥♥

이땅,아름다운 여인이고 싶네

이제 이런 여인이고 싶네
강물같은 스물을 넘어
우리들의 어머니가 당당히 그러하셨듯
한 많은 이땅 대처에서
지쳐 돌아온,
맑은 피 흘리는 남자를 만나 사랑하고 싶네
온가슴 넉넉히 힘이 되고 싶네

이제 이런 여인이고 싶네
나면서부터 웃목으로 던져져버린 이름석자
화려한 자본시장에 상품으로 팔리워진 풋풋한 순결
착취에 한겹 더 착취를 받는 식민지 조국이라면
이제는 내 손으로 당당히 찾아오겠네.온몸에
감긴 더러운 굴레 당당히 끊고 오겠네.

이제 이런 여인이고 싶네
갈라진 하늘아래 갈라진 그리움
오뉴월에도 서리를 내리는 간절한 염원이 되어
분단된 조국 산천 곳곳에
지천으로 피어나는 너도나도
눈부신 통일의 꽃이고 싶네.진정 이렇게
아름다운 이땅의 딸이고 싶네.

♥♥♥♥♥♥♥♥♥차 례♥♥♥♥♥♥♥♥♥

여는 시—이 땅,아름다운 여인이고 싶네 ═══ 1쪽
제 4 기 대경 여대협 의장님 및 대표자님 인사말═══2쪽
강연 자료—93년 여성운동의 과제와 전망═══5쪽
제 4 기 대경 여대협 총노선═══15쪽
대경 여대협 소속 각 대학 여학생회 총노선═══24쪽
각 대학 여학생회 사업의 모범 사례═══39쪽
대구경북지역 여성단체 소개═══44쪽
윤금이씨 투쟁═══50쪽
함께 부르는 노래═══55쪽
자료집을 마치며

♥♥제4기 대경 여대협 소속 각대학 대표자 인사말♥

제 4 기 대경여대협 의장 민족 경북대 총여학생회장 이영주 입니다.

화사하던 개나리 꽃도 지고 어느새 아침바람도 포근함을 느끼게 합니다.

대구경북지역 각 대학 여학생회 일꾼들은 방학때서 부터 여성자주화의 기치높이 여학생회일꾼들은 달려왔습니다.

양키의 군화발에 짓밟힌 반도의 딸 윤금이씨사건을 시작으로 일꾼학교,예비대학, 출범식····

함께하는 학우들의 투쟁속에 힘을 얻기도 하고,때로는 지치고 힘들어하는 간부를 보며 가슴아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학우들과 함께 여학생운동 한번 잘 해보려는 우리 여학일꾼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4만여학도의 자주적 삶을 책임지고자하는 모든 일꾼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

서로에게 힘을 주고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도록 합시다.

청년 경산대 총여학생회 회장 김영숙 입니다.

금이의 한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의 여성 자주화 실현에 나서야...

대구지역의 4만 여학우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케네스 마클에게 무기징역형을 내리기까지 우린 모두 다시한번 이 땅의 여성들이 미국에 의해서 고통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윤금이씨 투쟁을 풀면서 물론 냉담했던 학우들도 있었지만 새내기들을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해내고 공판 투쟁에 참가하면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반미주간을 하면서 더욱 학우들을 믿게 되었고 우리의 투쟁은 학우들과 함께 할 때만이 승리하고 또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대경 여대협 여학생 일꾼들 모두 하나가 되어 넓은 가슴으로 올 한해 여학생운동의 발전을 이루어내는 주체가 됩시다.

영남대 총여학생회 회장 김은희 입니다.

제 4 기를 맞이하는 대경 여대협을 나의 조직으로 받아 안고 나로부터 대경 여대협 4만 여학우과 함께 하겠다는 열린 마음으로 올 한해 열심히 노력하여 대경여대협 여학생운동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 냅시다.

안동대 열린 총여학생회 회장 백지현 입니다.

반갑습니다.대경여대협 여학생회 일꾼여러분! 우리 안동대는 지난 4월 12/13/14일 제 1 기 자주여성 민주남성 학교를 열었습니다.'언제나 시작은 눈물로'라는 노랫말

♥♥♥제 4기 대경 여대협 소속 각대학 대표자 인사말♥♥♥

처럼 처음으로 실시한 자주학교는 그만큼 힘들었지만 그래서 더욱 가슴 설레었고 성과 있는 사업이었습니다.여대협 일꾼 여러분! 이렇게 첫 경험은 언제나 더 두렵기 마련이지만 새로운 시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역사는 발전하겠지요.올 한해 우리 모두 여학생운동의 창조자가 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일꾼들이 됩시다.

경북대 자주 총여학생회 부회장 김은숙 입니다.

일꾼 학교에 오신 모든 일꾼들에게 책속의 글귀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대중간부의 올바른 생활 모습을 이야기 하는 글입니다.'나에게서 가장 재미 있는 일은 남을 도와 주는 것,나에게서 가장 즐거운 것은 남의 기쁨을 구경하는 것'

계명대 민주 총여학생회 회장 배현주 입니다.

계명대는 학교 상황은 객관적으로 다른 학교 보다 더 어렵습니다.학내에서부터 성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가려는 우리의 노력은 결코 쉽지만은 않군요.하지만 올 한해 ,여대협의 다른 간부들을 믿고 계명대에도 여학생운동의 새 장을 열기 위해 우리 간부들 모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동국대 총여학생회 회장 송기애 입니다.

경주에서 열심히 여학생운동을 벌이고 있는 동국대 우리 간부들에게 여대협 간부 여러분들의 지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멀어서 종종 같이 하지 못하는 것이 참 미안합니다. 이번 간부학교를 계기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가 더욱 열심히 대경 여대협의 주인된 자세로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구대 여학생 위원회 위원장 황순희 입니다.

안녕하세요 ? 자랑찬 여학생회 일꾼 여러분! 대구 경북 지역 4만 여학우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로 의장님을 중심으로 93년 한해동안 여대협을 힘차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이번 간부학교를 통해 여학생운동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쌓으며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를 만들어 봅시다.

대구 교대 여학생 부장 전은조 입니다.

저는 총학에 여학생부가 있어서 다른학교의 총여학생회 사업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일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교대에서 여학생운동을 열어가는 선배된 자세로 올 한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힘찬 전진으로 여성운동의 새지평을 열자

—한국 여성 단체 연합 공동 대표 한명숙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은 이 사회의 심한 굴곡만큼이나 역사적 변화를 거듭해 오늘에 이르렀다. 해방이후의 역사적 단절,그로인한 30여년 동안의 침체와 공백기를 거쳐 여성운동에 대한 심각한 자성의 70년대를 맞는다.

우리의 딸들은 잠자던 눈을 떠 소외된 사람들 편에서 역사를 재조명하며 힘겨운 역사의 언덕 80년대를 투쟁속에 뛰어넘어 보다 나은 삶을 꿈꾸며 90년대를 맞았다.

90년대는 오늘 우리가 일하는 역사적 현장이다. 과연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지난 해에 치러진 대선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한걸음의 역사적 전진을 기대했다. 물론 30년만에 처음으로 열린 문민정치의 시대라는 점에서 오늘의 사회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며 역사적 발전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발전이 왜 이처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기대도 걸 수 없을 만큼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는가?

이것은 아마도 "안정 속에 개혁"이라는 두 단어 자체가 서로 융화될 수 없는 갈등관계이듯이 이 두가지가 한 역사 속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역사적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때문일 것이다.

청와대의 대통령 자리가 군인출신에서 민간인으로 바뀐다고 해서 30년동안 이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군사적 관료주의와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인지 저으기 의심스럽다.

후진적인 경제정책으로 부를 축적한 재벌과 불로소득자들의 횡포, 불의한 자본에 의해 한없이 빼앗기고 있는 노동자들, 정부의 농정부재로 인해 농촌에서 밀려나고 죽어가는 농민들의 생존권,불경기와 자동화로 밀려나는 여성노동자들,공기,물,먹거리가 파괴된 생활환경에서 생명보존이 위협당하는 우리 모두들,잘못된 교육정책에 시달려 비뚤게 커가는 우리의 자녀들,뒷거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뿌리깊은 부정부패의 사회구조···

이처럼 경쟁과 대립시대를 통해 쌓이고 싸인 불신과 이해타산으로 공동체가 해체당하는 이기주의와 만능주의를 어떻게 '안정 속의 개혁'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김영삼대통령은 대선기간동안 많은 여성정책공약을 내걸고 여성들의 표를 얻었다.

대통령 직속으로 '여성정책 특위'를 설치하고 시간제·가내노동자보호법을 제정하고 가족법 개정,남녀고용평등법의 벌칙규정을 강화하고 영유아 보육시설을 증설하는 등 많은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여성정책 특위'가 산적한 여성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구조도 아니며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소외되고 눌려 온 여성들의 삶이 몇가지의 법의 제정과 개정 만으로 나아질 수없다. 여성들의 삶의 증진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정치 경제 사회구조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성들의 삶을 억압해 온 기득권 집단이 부당하게 취득한 부와 권력을 내어 놓는 쪽으로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1993년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공동대표제를 채택하고 40대의 젊은 지도력을 일선에 내세웠다.새로운 각오로 공동대표를 맡은 세사람은 근본적인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서도 한쪽으로는 보다 다양해지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는 여성운동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의 운동방향에 맞는 합리적인 조직체계,운동방법, 실천과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해방이라는 높은 이념과 이상을 여성대중들의 삶과 접합시켜 여성대중운동의 실제적인 내실화를 기하고자 한다.

또한 일의 목표와 결과도 중요하지만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인간에 대한 사랑과 참민주가 배어들어 즐겁고 활기에 넘치는 여성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의 올해 과제는 성폭력특별법 제정,방위비 삭감문제,여성노동자 고용문제,지역여성운동의 질적 발전과 조직적 확대 등 힘겨운 난제들로 가득차 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중층적이며 복합적인 사회문제 한가운데에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는 패배와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끈질긴 민초적인 저력을 발휘할 때이다.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빼앗긴 권리를 찾기 위한 다부진 투쟁과 함께 역사를 멀리보고 항상 의연히 걸어갈 수 있는 유연성을 동시에 가질 때 보다 큰 힘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운동은 앞을 향한 움직임이지 정체가 아니다.

가파른 여성운동의 언덕 90년대를 다시 한 번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넘어 봅시다.

93년도 방향과 과제

정 종숙.
대구여성회 사무국장님.

1. 사업방향

지난 대선 이후 등장한 김영삼 새체제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군사정권의 시대를 마감하고 절차상으로는 정통성까지 확보해낸 문민정부라는 점에서 과거의 군사독재 체제와는 다르게 의사민주주의와 절차적 민주성을 과시하면서 형식적 민주화에 다른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시켜낼 것으로 보여진다.

정권의 정통성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뚜렷한정치적 쟁점도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김영삼 새정부는 제한적인 민주주의와 지역분할 지배체재를 제도화시켜 내면서 민주화를 효율성과 등치시키고 "생산의 정치"를 강조함으로써 체제내적으로 국민들을 통합시켜내려는 과정과 함께 민주세력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는 고립화전략을 계속 구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김영삼체제의 본질적인 성격이 가지고 있는 한계,즉 기존의 권위주의적 군부와 국가기구의 연속상에서 탄생된 체제이기에 "개혁"의 요건은 기본적 한계를 노정시킬 수밖에 없으리라 보여진다.

문제는 이런 기본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취한 개량적 조치들이 가져오게 될 현상의 변화 즉 과거의 군사독재체제와 같은 억압적 조치들이 쉽게 가시화되지 않은 조건에서 대중의 행동화 역시 쉽게 조직화되기 어렵다고 하는 상황 자체가 종래의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전선을 형성해내고 반독재민주화투쟁으로 집중화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냉전체제 해체이후 동북아시아에서의 일본의 군사대국화문제,클린턴 미국정부의 새로운 국방정책 및 동아시아정책,동남아시아에서의 군비증강 등 급변하는 동북아정세와 관련하여 한반도의 통일과정과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진로에 따른 "민족"문제 내지 "자주"의 문제는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보다 중요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종전의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의 일정한 후퇴가 보여지나 일반 민주주의 실현의 요구와 민족문제 내지 자주투쟁의 과제가 복합,중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민주세력은 실질적인 민주개혁의 요구와 자주통일의 과제를 실현시켜나가는 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정책 대안 제시로 대중성과 정치적 입지를 지속적으로 확보,확대해나가려는 노력이 요구된다.조직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김영삼체제이후 선거가 일상화되는 국면에서 정치적 공간의 확대가 주는 위미 즉 합법공간의 상대적 역할의 비중이 점차 중대되어 간다는 측면에서 대중운동의 다양한 영역을 개발하고 특히 지

역을 기반으로 한 대중조직의 강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조직방식과 사업방식의 다변화를 통해 대중적 기반의 실질적 확대를 도모하여 변화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주요한 정치세력으로서의 그 신뢰성과 대중성을 확보해 가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하겠다.

이점에서 '93년도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변화하는 주·객관적 상황에서 김영삼체제가 지닌 제한적인 성격을 갖는 개혁정책이나마 그 수립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 여성운동적 시각에서 개혁정책의 관점 내지 일반민주주의의 실질적 실현을 요구하며 특히 여성정책과 관련된 각 계급계층의 다양한 대중적 요구를 설득력있는 정책대란제시와 창의성있는 대중적 운동방식을 통해 정치적 요구로 전환시켜내고 한편 여성운동의 대중적 조직력 기반의 확대를 위해 지역의 여성운동 공간을 매개로한 생활영역의 과제개발과 아울러 다중과의 결합 가능한 방식으로의 지역여성운동을 보다 강화시켜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여성운동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 대중적 기반을 실질적으로 확대시켜나가는데 최대한의 경주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여연은 다음과 같이 선전 및 조직사업의 기조를 잡아나간다.

1. 선전의 측면

1)성폭력 특별법제정수립 및 성폭력추방을 위한 각종 압력 활동 전개

92년은 성폭력범죄가 사회적 범죄이며 사회적 대책마련으로서 성폭력특별법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을 조직적으로 성공적으로 제기해 왔고,현재 여연의 성폭력특위안을 비롯한 4개 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중이다.

이에 93년도에는 92년도 활동의 성과를 맺는 해로 삼아 현장의 경험을 바탕을 통한 여성계의 요구를 전반적으로 수렴한 성폭력특별법이 국회내에서 통과되 수 있도록 성폭력특별법제정에 대한 각종 여론 압력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고, 이와 더불어 성폭력추방을 위해 성폭력을 조장하고 있는 파행적 산업구조(향락산업의 비대화)및 음란·퇴폐문화에 대한 제도상의 문제점 지적 및 대안제시를 사회적으로 여론화시킨다.

2)군축과제로서 방위비삭감 및 여성복지확대를 위한 여론화작업 및 여성운동의 관점에서의 통일정책 및 통일 방안 마련을 위한 과제 작업

새정부가 통일 정책과 관련한 여러가지 정책을 내올 것에 대비,진정한 통일의 내용적 기초를 내오기 위한 여론 작업으로서,군축문제에서의 방위비삭감과 여성복지확대를 위한 여론화 작업, 여성운동의 관점에서의 통일정책 및 통일방안마련을 위한

연구 및 여론화작업에 그 초점을 둘 것이다. 또한 통일독일국가에서의 여성의 생존권문제라든지,여성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정책의 후퇴 등으로 보여지는 문제와 관련하여 통일이후의 여성문제에 대비하는 연구작업도 진행한다.

3)여성노동문제로서 여성고용불안정 문제와 관련한 비 정규직고용(임시직,시간직,용역문제 등)에 대한 사안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여성고용한정을 위한 제도마련에 대한 활동을 전개

90년대 초반부터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문제(임시직,시간직,용역문제)등 여성의 고용불안정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제기 및 여성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적 대비책 마련을 위한활동을 전개한다.

4)정신대문제해결을 위한 연대활동 강화

정신대범죄에 대한 진상규명,배상 등 정신대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외적 여론작업(유엔,일본,아시아)등 정대협활동에 적극 결합한다.

2.조직의 측면에서

1)그체적인 지역여성운동의 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직적 인 시도를 전개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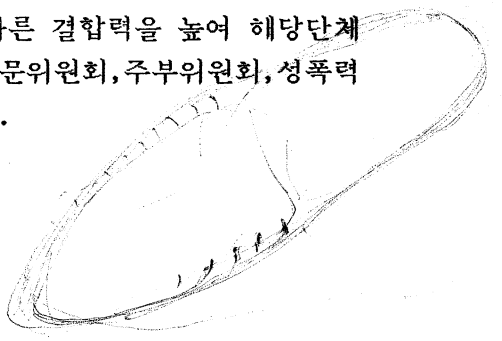
여성정치세력화를 위한 구체적 조직과제로서,현재 생협,공부방,탁아소,문화센터 등을 매개로 한 지역내에서의 지역여성운동 조직화방안을 위한 시도들을 전개하고, 이러한 지역여성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여성의 정치세력화방안을 보다 구체적인 과제로 확보해 나가도록 한다.

2)각부문,지역회원단체들간의 조직결속력 강화 활동

조직적결속력은 주로 해당사업내지 회의체계를 중심으로 주요지도력간의 결속력강화에 그 초점이 주어져온 바 93년도에는 이러한 골간체계를 중심으로 골간체계의 활성화를 통한 주요 지도력간의 결속력강화(대표자회의,집행위,정책과 사업위,지역위)와 더불어 지역·부문운동에 편재되어있는 회원전체간에 전면적인 결속력을 확인하고 동지애를 공유하며,여성운동에 대한 주체성을 높이고 연대운동의 구심점을 강화할 수 있도록,93년도 하기수련회는 단합대회적 성격을 지닌 수련회로 진행한다.

3)여성운동의 주체역량강화(특히 전문성및 효율적인 사업방식의 확보의 측면에서)

를 위해,과제별,부문별 위원회의 프로그램의 질적 내용의 풍부함과 그 활성화를 통해 관련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 회원단체에게 사업에 따른 결합력을 높여 해당단체의 주체역량강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정책전문위원회,주부위원회,성폭력특위 등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질적고양에 힘쓰도록 한다.



2. 사업 계획

1.중점 사업:"성폭력 추방의 해"

1)92년에 각 당의 총선공약으로 성폭력 법안을 상정하면서 각당에서는 성폭력대책안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92년도 사업의 목표가 성폭력 범죄가 인권문제로 인식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대안방안의 하나로 성폭력특별법의 제정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해 왔고,각 당이나 정부차원에서도 나름대로의 성폭력대책안을 만들어내는 성과를 가져왔다. 1993년은 성폭력특별법인의 제정의 방향을 여론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정부와 국회를 겨냥한 활동으로서 성폭력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구체적인 방침마련을 촉구하며,여론조성활동으로써 민자당의 성폭력특별법안의 문제점을 폭로하면서 제정의 방향 및 그 내용을 대중적을 쟁점화시키는 홍보선전활동을 강화한다.

2)법 이외의 성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대안제시와 함께 사회적으로 여론화시킨다.(향락산업 비대화와 성상품화,성교육 미비,의료서비스체계 미비,쉼터·강간위기센터와 같은 시설의 필요성 등)

3)부문별 운동과제를 개발하고 실천활동을 지원한다

성폭력문제에 대한 지역단위별(지역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발굴 및 대책활동과 관련한 기타 지역적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부문별(노동,탁아,주부,교회여성 등)운동과제를 개발하고 지원한다.

4)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성폭력특별법 제정방향 및 조속한 제정의 여론압력을 위한 활동으로 ,대통령,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각 정당,정무 제2장관실 등과의 면담,간담회,공개질의서 등을 조직하며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화의 방식으로 성폭력조장문화 추방기획 캠페인은 전개한다.

2.평화·통일 사업

1)'91년 남북합의서 교환과 남북한 비핵화공동선언 등으로 새로운 변화가 예고된 잠북관계는 최근 IAEA가 요구하는 북한의 핵사찰문제,이와 연계된 팀스피리트 재개 등 남북관계는 고착상태에 들어가고 있다.

또한 클린턴 미국정부의 동북아시아정책의 변화,동북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군사대국화 현상과 기타 주변국가 들의 군사력 증강 등은 한반도의 통일정책 내지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변수들을 내재하고 있고 이속에서의 남북관계는 불투명한 상태에 놓여지고 있다.특히 미국의 대한반도 통일 내지 대북한의 정책은 유사시 북한에 대한 "핵 선제 공격 옵션유지"를 의미하는 대한국 핵우산정책으로 견지하여 나갈 것이고,대남북한 군축문제에 대한 정책 역시 북한이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에 성실성을 보이지 않느 상황에서의 남북간 군축협상은 무의미하며 위험하다고 보아 한국군 현대화 노력을 계속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한국의 공군 및 해군의 전력강화를 위한 군사확대만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일관하여 나갈 것이다.

주한미군의 감축문제에 대한 접근은 1990년대 이후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군이 한반도의 군축을 유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탈냉전에 따른 미국의 동북아 전진 배치 전략의 전반적인 축소조정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감축을 군축의 협상대상에서 철저히 제외시켜 선별적인 군사적 신뢰구축협상을 중심으로 한 "힘을 통한 제한적 협상"태도를 견지해나갈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동북아시아정책 태도의 이면에는 한반도에서의 남북한간의 연대형성이 가져올 한·미·일 3국간의 정치·안보적 협력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해 애초부터 쐐기를 박고자 하는 기도가 숨겨져 있고,나아가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된 동북아 전진배치 전략의 전반적인 조정작업과,일본의 군사다국화에 대한 미국측의 권면은 바로,한반도에 대한 정치·군사적 패권에 대한 행사를 미·일 양국의 합의하에 일본의 정치·군사적 영향권 및 그 보호하에 두려고 하는 의도를 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러한 객관적인 상황이 의미하는 바는 한·미·일을 둘러싼 동북아간 국가협력주의에서의 한국의 위상을 비계층적인 위계적 질서에 편입되는 상황으로 몰고감으로써,한반도내에서 남북간 민족 내부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 더욱 적극적인 대화와 관계개선을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제어하고 한반도 통일과정이 미·일 등 외세의 개입으로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서 우리 민족 자신이 우리 내부의 정치외교적 역량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통일과정에 대한 주도권을 확립하고 나아가 동북아에서의 세력균형에 능동적인 참여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해 나가는 일이 보다 긴요하

게 제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종래의 한미군사적 종속관계에서 배태되고 정권유지의 통치이데올로기로 작용된 안보개념을 민족공동방위 내지 통일전향적인 안보개념으로 확대시켜내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며,민족의 자주적 힘에 의한 남북한 관계 개선,통일전향적인 안보개념으로 확대시켜내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며,민족의 자주적 힘에 의한 남북한 관계개선,통일정책을 이루어내기 위한 주요한 내용으로 남북군축실현을 위한 방위비 삭감 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통일운동의 대중화 및 여성운동의 통일방안에 대한 입장들과 통일과정이 민중의 힘과 이해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남북한 통합방식에 대한 논의와 공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UN인권위에서의 정신대여론화 활동과 국제적인 여성운동과의 연대망 강화,스위스 '국제화해센타'에서의 보고서제출 등 정신대 사안은 국제적인 사안으로서 인권단체 및 여성단체의 주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그러나 한일간의 관계정상화를 내세운 미봉책으로 정신대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려는 일본측의 기도에 쐐기를 박고,민족수난에 대한 일본측으로부터의 공식적인 사죄와 배상의 차원,아울러 한·일간의 굴욕적 외교에 대한 국민적 각성이 민간차원의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전여성계의 조직적이고도 집요한 대응이 요구된다 하겠다.

3)이를 위해 여연 '통일과 평화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광범위한 민족통일세력과 연대하여 방위비삭감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 간담회,공개토론회,관련 상임국회의원과의 간담회,공청회를 통해 새로운 안보개념의 정립과 함께 남북한 군축의 사안을 대중적으로 여론화시키고 조직화시키도록 한다.

또한 통일방안과 관련하여,그간의 통일방안(정부쪽,재야쪽,기타···인사)검토를 거쳐 여성운동입장에서의 통일방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보고 모색하며,통일 독일 상황에서 나타나는 통일이후의 제문제,특히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제 사안 및 통일에 따른 통일방식에 대한 여성운동의 입장을 재조명해 보는 해로 잡는다.

통일운동의 대중적 확산을 위해 6.25를 통일평화의 달로 재정립하기 위한 행사로 90년의 여성평화 한마당에 이어 통일을 위한체육대회를 6.25시점에 맞추어 조직한다.정신대 이슈에는 정대협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정신대 사안 해결을 위한 범여성계의 공동대응에 결합해 나가도록 한다.

3.기층여성운동력강화활동

새정부는 신한국창조를 위해 고통분담을 앞세워 노동원리와 생산성을 강조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질서 및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에 대한 개혁을 강조함으로써 생산에 반하는 집단으로서의 노동운동세력에 대한 공세를 집요하게 펴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휴일축소론 등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월차생리휴가 폐지 및 생리휴가 축소,변형시간근로제 등 근로 기준법 개악움직임과 함께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는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불인정,무노동·무임금·총액임금제 등 기업별 노조체계의 강화와 노조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하는 노동법 개악을 시도할 것이고,작년부터 심화되어 온 고용불안정 내지 실업율의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의 전반적 침체분위기를 노동법 개악 및 노조 무력화의 지렛대로 이용할 공산이 예견되어진다.

여성집중업종에서의 고용상태는 시간제 임시직 근로자의 증가,용역업의 증가 등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심각한 고용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될 전망이며,이에 따른 여성의 노동조건 및 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은 후퇴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때문에 노조의 무력화 기도와 맞물리어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노조차원에서 제기하고 특화시켜 내는 것은 더욱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점에서 생존권 투쟁사업 및 고용보장투쟁 등에 용역문제,시간제,임시직 등 고용불안정 사안,모성보호,탁아문제등에 대한 공동대처를 가능케 하기 위한 여성노동운동의 공동전선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에 여연노동위원회는 지난 대선시기 일사는 여성들이 바라는 여성정책을 공동으로 제출한 사무직,생산직 노조단위와 노동운동단체와의 공동전선을 더욱 상화하여 고용불안정 상황 및 모성보호,평생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한 집요한 대응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점에서 상반기 여성노동운동단체와 노조단위와 결합하여 용역노동에 대한 대책과 용역노동자의 보호대책마련,정부의 용역법 제정에 대한 신속한 대처 및 여론화를 위해 "용역문제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조직하는 것을 시발로 여성고용불안정 및 모성보호,평생평등노동권 확보 사안을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여론을 조직화하도록 한다.

4.회원단체의 조직적 결속,여연 조직력 강화활동

진보적인 여성운동그룹으로서의 여연 회원단체는 자기 대중에 맞는 운동과 조직의 전형을 창출해냄으로써,굳건한 대중조직체로서의 발전적 행보를 지속적으로 꾀하고 있으나,단체가 직면하는 내부적 어려움(재정문제,지도력의 실무력 불안정,전문성 부족)등으로 인해 지난 1,2년간 많은 단체들이 일정한 조직력 정체를 맞고 있다.

이러한 조직력 정체의 원인에는 앞서 지적한 어려움 외에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사업주체에 대한 조직적 접근방식이나,운동방식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거나 새롭게 모색되어온 사업방식 역시 대중조직화의 새로운 유형으로 정착되기에는 일정한 시기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문별로 주체의 조직화 내지 사업방식이 더욱 전문화,특화되어가고 있고,그에 따른 일정한 조직력강화로 표출되고 있기에 93년도 여연의 조직사업은 부문별로 전문화되어가고 있는 주체의 조직화와 사업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경험의 축적과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과제의 공유와 타개방안등의 교류를 정례화 함으로써,회원단체간의 조직적 결속 및 여연 조직력 강화로 귀결되도록 하는데 그 초점이 두어질 것이다.

또한 합법공간의 상대적 역할에 대한 비중이 점차로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여성운동공간을 매개로한 지역여성운동모델을 창출하고,이러한 모델창출과정에서 대중성 기반확대와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과제가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하며,설득력있는 여성정책에 대한 대안제시를 위해 정책전문위원회의 풀을 형성하고 세계여성운동 속의 한국의 여성운동의 위상강화와 국제 여성운동과의 연대망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위원회 구성하여 이런 제반 활동이 전체 여성운동의 조직력강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제4기 대구경북지역 ♥♥♥♥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총노선♥♥

순 서

1,들어가며
2,여대협의 사상이론적인 측면
—부문계열운동으로서의 여학생운동
—여학생운동의 방향성
3,사업내용
4,조직사업
—여대협중앙단위
—간부역량강화
—기층조직화
5,투쟁사업
6,연대사업
—대구지역 탁아소연합회
—여성농민회
—지역 여성단체
7,행사사업
—간부학교
—출범식
8,시기구분

1.들어가며

민중의 억압이 있는 곳에 항상 맨 선두에서 투쟁한 백만 청춘의 자랑 전대협이 이제 학우들의 생활 깊숙이에서부터 함께 투쟁해나가려는 조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한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 지난 시기 전대협은 미제와 지배집단에 대한 투쟁을 식민지 청년학도의 조국사랑의 마음으로, 억압받는 민중의 대변자적 역할로 충실히 해왔습니다. 이제 우리의 운동은 발전하고 있습니다.학생회가 간부중심의 선도 투쟁체적 역할에서 백만학도의 생활과 학문에 대한 고민까지 함께하며 느린 걸음이지만 학우들과 같이 하는 투쟁으로 백만학도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여학생운동은 여학우와 함께 하려는 노력으로 질적인 도약을 내어와야합니다. 여학

생운동 또한 식민지 사회에서 가지게 되는 민족모순과 계급모순속에 중첩되어지는 성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 학생운동의 한 부문운동으로써의 자기정립을 하여왔습니다.

그렇지만 여학생운동은 자기 내용성 확보와 청년학생운동에의 복무라는 역할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백만 청년학도의 이해와 요구를 하나씩 찾아나가는 전총련식 운동의 모범을 본받아 여학생운동은 다양한 삶의 이해와 요구에서 나오는 부문계열운동으로의 자기 내용을 찾고,이를 통해 한총련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것입니다.

대구 경북지역에서의 자주적 학생회의 전면적 구현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각 대학 여학생회가 여학우들의 힘과 지혜로건설,강화되는 것과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문계열 운동에 대한 이해수준을 높여내어 학생회 강화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하는 것입니다.

93년 여학생운동은 여학우들의 삶에서 시작하는 자주적 여학생회의 관점을 확실히 하면서 대구 경북지역 여학생운동의 대중화에 일대 전진을 내어와야합니다.

****제4기 대경 여대협 총목표**********

"여성 자주화운동의 대중화를 위해 기층단위 조직력 강화를 이루어내자."

2. 여대협의 사상이론적인 측면

1)부문 계열운동으로써의 여학생운동

여학생회는 학우들의 생활,학문,투쟁의 공동체인 학생회속에서 여학우들이기에 느끼는 어려움을 여학우들이 주인이되어 집단적으로 풀어나가는 여학우조직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여학생운동이라고 하며 이는 학생운동속에서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위한 부문계열운동이라 말한다.

애국적인 지향과 요구가 드높은 것은 청년학생의 특성이라 할 수있다. 그들의 생활 곳곳에서 나타나는 애국적인 지향과 요구를 높여내고,모아내며 이러한 힘이 전체 학생운동을 강화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부문계열 운동은 그중요성이 더해진다고 하겠다.

여대협의 성폭력의 근원 주한미군철수투쟁,전사련의 입용고시 철폐 투쟁, 공대의 민족자주 과학 기술운동등은 학우들의 다종다기한 이해와 요구를 전공별로 또 특수한 처지에 따라 풀어가는 부문계열운동의 모범이라고 할수있다. 이러한 학생부문계

열운동의 성격과 내용은 전체 학생운동을 풍부화 대중화시킨다.또한 사회전문분야로 진출하는 예비 사회인인 학우들을 민주적이고 애국적 시민으로 의식화 조직화한다. 학생 부문계열 운동으로써 여학생운동이 청년학생운동을 어떻게 강화하고 발전시키는가를 보자.

첫째로, 여학생운동은 청년학생운도의 대중화에 기여한다. 청년학생운동에 동참할 만큼 선도적인 정치의실은 가지고 있지 옷하나 생활속에서 나타나는 여성문제에 대해서는 민감한 여학우들이 많이있다. 이들의 이해와요구에 맞게 여성문제 연구소모임을 만들고,탁아소 자원봉사 활동의 최소한 실천경험을 쌓아 자주적인 활동성을 높여내게 해야한다. 이런 자주적인 활동의 경험이 전체 운동에 대한 의지로 발전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년학생운동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두번째로,여학생운동은 청년학생운동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킨다. 여학생회에서 성폭력 퇴치투쟁을 풀어나갈때에 단순히 남녀학우들의 의식개혁,가로등확충,규찰대를 해결대안으로 보고 투쟁한다면 근본적인 해결 또한 되지 못하고 결국에 여학우들이 잘못라여 일어나게된다 실의 개인적인문제로 치부하게된다.윤금이씨 투쟁을 통해 이 사회 성폭력의 근본원인이 주한미군이고 지배정권의 우민화 정책의 일환임을 볼수 있었는데 이처럼 여성문제의 근본원인을 바로 보고 투쟁한다면 여학생운동은 청년학생운동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킨다.대구 경북지역 여학생운동이 지금까지 내용적으로 조직적으로 많은 발전을 해왔다. 하지만 아직도 여학생회사업을 하는데 있어 학생회와의 관계에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여학생운동에 대한 몰이해 또는 전체운동속에서 여학생운동의 위치를 못본다든지, 이러한 것으로 전체운동을 풀어나갈 일꾼들이 힘이 빠지거나 서로간의 감정대립으로까지 가는 경우도 많았다. 이것은 여학생회라는 형식,체계가 있거나 없거나에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여학우들이 여성문제를 느끼는 곳에 이를 극복하려는 자주적인 모임이 만들어지고 또한 이 자주적인 노력은 전체운동의 방향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임을 볼때 학생회,여학생회 일꾼은 부문계열운동으로써의 여학생운동을 바로 보아야 할것이다.

제1기 한총련의 출범으로 전국적인 관점에서 학생회가 학우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으려하는데, 이제 여학우대중의 자발적인 노력과 움직임을 소중히여기고 발전시켜내는 것이 자주적 학생회를 구현하는데 중요한 과제라 여겨진다.여학생회에서도 여학우들의 자주적인 이해와 요구를 바로찾고, 이의 해결을 위한 투쟁도 먼저 고민하고 과감하게 실천하여 여학우들의 힘에 기반하여 주체적으로 정세를 개척하겠다는 것이 필요하겠다.

2)여학생운동의 방향성

대다수의 여대생은 여성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되어 있지않기 때문에 의존성이 강하고,개별적이고 집단성과 규율성이 약해 전반적인 학내활동에 있어서 소극적이다. 취업문제와 같이 자신에게 닥쳐오는 실질적인 문제에서조차도 많은 여려움을 느끼며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한다.여학우들의 활동이라하면 과에서 마음에 맞는 학우까지 소모임을 갖는 수준이고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식적인 모임과는 많은 거리가있다.때문에 이러한 여학우들에게 여학우들에게 생활상에 나타나는 여성문제도 개인이 아닌 집단적으로 해결해나가야 된다는 것과 결국 문제를 해결해 나갈수 있는 것은 자기자신임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 성폭력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여학생회에서는 학내에서부터 여학우들이 이에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하고 음담패설,패스티발문화,동문회문화등을 개선하고 없애나가는 일 주체의 역할을 하게끔 지도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현재 여학생회의 조직화 정도는 많은 편차가 있고 그 정도는 매우 미약하다. 아직 기본적인 회체계를 확보하지 못한 곳도 있고 다양한 소모임도 친목모임 수준을 못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다.

여학우들이 여성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힘이 필요한데 현재 여학생회의 상황으로 볼때 여학생회 조직 강화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볼수있다.보여주기식 행사사업에서 탈피하여 여학생회 조직강화를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할것이다.

즉 여성문제연구소모임이나 탁아자원봉사자활동모임등의 목적의식적이고 지속적인 건설,지도가 그것이다.

3.올해 여대협의 중심 사업내용 (성폭력 대책 투쟁/조통/취업/탁아)

1)성폭력 대책투쟁

92년 한해 동안 보은 진관 투쟁을 시기적 사안으로 해서 성폭력 문제에 대한 의식화 사업에 주력했었다.총선 대선 속에서도 성폭력 특별법 제정 투쟁,사회전반의 성폭력 문화 퇴치를 위한 투쟁을 벌였다.그러나,대선 패배로 여전히 성폭력은 대안 없이 심각한 여성문제로써 남아있으며, 상대적으로 보호 받는 대학속에서도 점점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다. 그렇기에 보다 장기적이고 질기게 투쟁의 중심으로 잡아나가야 한다고 본다.성폭력이란 어떤 문제보다도 인간을 본질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 파악과 대안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층 단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성폭력 대책 사업을 고민하자.과나 단대 단위로 벌어지는 여러가지 축제에서 나타나는 성상품화를 막아내고 건강하고 평등한 대학 문화를 생산하자.과,단대 여학생회 주체들을 중심으로 페스티발,신입생환영회에서 이제 까지 나타났던 왜곡된 성상품화의 모습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짚어보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자.이것은 과 여학생회를 건설 강화해 가고자 하는 현 시기에 하나의 좋은 기층 사업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제안;5월 대동제 기간에 성폭력의 원인과 성교육을 기본 내용으로 여대협이 동시 다발로 전면화 해보자. edps에서 강간까지 대학에서 나타나는 성의 문제를 선전,주제 발표회,강연회등 다양한 방도로 풀어보자.시기를 5월로 잡은 이유는 5월로 들면서 대동제가 놓이고 날씨 또한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학내 성폭력—edps,술자리 문화에서 강간까지—이 만연해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이다.

2)반미조통투쟁

93년 여대협의 첫 투쟁 내용으로 받아 안았던 윤금이씨 투쟁을 장기적인 관점으로 풀어내자.한 시기에,한국내의 문제로서만이 아니라 45년이후 미제에 의해 이땅에 뿌리내린 민족적 억압의 문제로서 이를 여학단위에서도 보다 주체적으로 받아 안으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단지 7/8월 시기적인 투쟁으로서가 아니라 의식화 조직화의 장기적인 전망으로서 고민하자. 92년 정신대 간담회,전여대협 통선대,편지교류 투쟁,북한 바로 알기 선전 등으로 풀었던 조통투쟁을 계승하자.그러나 93년에 바뀌어진 정세를 충분히 고려해야만 한다.정신대 문제를 올해의 정세속에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 지,북한의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를 구실로 다시금 조성된 남북간 긴장 상태,그리고 교묘하게 더욱 조장된 반공반북 이데올로기를 뚫고 올바른 통일방안을 모든 학우들과 합의해내고 분단의 근원을 어떻게 없애나갈것인지를 고민의 바탕에 깔면서 여학운의 내용속에 조통투쟁을 읽어내자.

3)취업

이전까지의 취업에 대한 여학단위의 투쟁으로는 이제 한계가 뚜렷하다.학우들은 이제 더이상 '여성의 취업 차별이 사회구조적인 원인이고 취업 이후에도 이러 저러하게 여성들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폭로,대안 없는 흥분에 동의하지 않는다.이미 학우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만큼 알고 있으며 이들이 원하는 것은 실제의 취업이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여학생회에서 취업 문제를 받아 안지 않으면 안되는 변화의 조건 또한 무엇인가? 여학우들,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요구가 그만큼 높아졌다는데 있다.이는 여학우들이,여성들이 그만큼 자주적인 삶에 대한 요구가 높아 졌음을 반영한다.그렇다면 문제는 이러한 자주적인 요구를 어떻게 받아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여기에서 우리는 변하지 않은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다.아직도 여학우들의 취업 요구와 노력이 사회구조적 차별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높지는 못하다는 사실이며,요즘 여성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인식이 되고 있다하더라도 자본의 가장 직접적

인 의도외 여성이 자주적으로 서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벽이 숱하게 많다.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사노동,육아...이것들에 대해 우리는 대학내 남성들과 먼저 함께 깨어나가고 합의하는 작업 그리고 여성의 자주적인 삶과 경제적 자립의 상관관계를 밝히면서 보다 치열한 여대생의 취업 준비자세를 바로잡는 일,그리고 한계는 있지만 당장 취업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과나 단대별로 선배들을 모시고 직접 알아보는 노력들도 있어야 할 것이다.취업 문제는 학교 상황에 따라 더 깊은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실현 방도;위의 기조로 아주 대중적인 강연회를 준비한다.과나 단대별 취업 간담회,취업정보를 알려준다.

4)탁아

91년 1월경에 날치기 통과된 영육아 보육법 시한이 94년 1월로 다가 오고 있다. 해서 올해 탁아 입법 개정투쟁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탁아 사업은 몇해 전부터 여학운의 내용으로써 자리잡아 왔고 올해 또한 기층 학우들을 여학생회 두리로 의식화 조직화할 수 있는 주요 내용으로 자리하고 있다.그런만큼 올해의 탁아 실정에 맞게 보다 적극적으로 투쟁을 풀어야 할 요구가 크다.아직 학내 탁아 사업이 제대로 풀리고 있지 않은 데 이러한 탁아 실정을 중앙에서부터 올바로 파악하고 미리 준비해가야 할것이다.

##구체적인 실현 방도;탁아 소모임의 건설,5월 대동제 기간에 모금운동을 중심으로 탁아 입법 투쟁에 대한 선전 의식화 작업을 대중적으로 풀어내고 하반기로 예상되는 탁아입법 투쟁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자.

4. 조직사업

1)중앙 단위 조직력 강화를 위하여

@@@ 대표자 회의의 질적 상승,강화;대표자 회의가 대표자들에게 사업에 대한 고민을 높여주고 해결해가기 보다는 많은 부담으로 자리하고 있음이 현실인것 같다.그리고 대표자 회의가 실무회의로 전락해 온것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이러한 현실에서 대표자회의가 대표자의 구체적인 고민을 풀어내고 여대협 공동의 힘으로 여학운을 풀어가기 위한 질적 도약의 방도가 시급히 요구 되고 있다.

##구체적 실현 방도;

-> 대표자들의 현실적 고민을 올바로 파악하기위해서 학교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방도를 모색한다—지속적인 하방,대표자회의내 각 시기 학교의 실정 파악

으로 해결 방도를 모색한다.

-> 여대협 중앙 단위의 매 월 기조 생산으로 대표자회의의 앞선 고민,여대협의 통일적인 월별 사업의 기조를 담보하자.

-> 학교마다의 중점 사업이면서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시기나 내용에서 서로 조금씩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여대협 소속 학교의 공통의 사업내용을 함께 논의하여 보다 발전된 사업의 정형을 확보하자.

@@@실무 단위 강화;중앙의 실무자 2인의 일상적 강화—대표자회의의 보좌를 더 잘하는 것,일상 하방을 더욱 내용있게 담보하는 것,의장 보좌—를 통해서 여대협의 강화를 꾀하자.

-> 연석회의를 시도 ,가능한 데 까지 책임진다.

-> 월별 사업 기조 생산을 비롯한 정책 단위로의 안착화를 꾀한다.

-> 일상 하방에서 기층 간부들의 어려움과 요구를 직접 듣고 사업에 반영한다. 연석회의 가능하지 않은 부서에 대한 지도를 최대한 이루어내자.자료교환에서부터.

@@@여대협 중앙과 각 학교 총여,위원회,여학생부와의 간담회;여대협 중앙과 각 대학 중앙과의 감을 같이 가져가기위해서 간담회를 제안한다.총노선 수립 과정에서 부터 간담회의 정형을 확보해 들어가자.

2)간부 역량 강화

@@@연석회의 안착화;탁아,여연,기획 단위만이라도 연석회의를 시도하고 최대한 끝까지 책임진다.연석회의는 대표자회의의 실무단위로의 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기층 간부와 여대협 중앙과의 감을 좁혀내기 위해서,기층 간부에 대한 여대협 중앙의 지도력을 높여내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부서 연석회의가 안착화될 수 있도록 올 한해 동안 여대협 중앙의 간부 마련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자.

##여연,탁아,기획부의 연석회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간부 교양;대중 사업 공간에 있으면서 가장 놓치기 쉬운 교양,학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해 중앙에서 공통적으로 커리를 생산하고 학교마다 교양 주체를 중심으로 최대한 교양을 지도하자.

##교양 내용;간부들이 여학운의 주인된 자세로서 사업에 임하게 하고 전체운동 속에서 부문으로서의 여학운을 올바로 이해하고 나아가 사회운동속에서 여성운동의 자기 전망을 고민하게 한다.

##실현 방도;4월 중으로 간부 교양 커리를 확정하고 학교마다 적절한 방법으로 교양을 하게 한다.그리고 여름 간부 하교를 통해 한학기 동안 사업을 하면서 지친 간부들에게 다시 한번 결의를 다지게 하면서 남은 사업의 기간 동안 장기적인 여성운동을 고민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자.

3)기층조직화 사업

@@@소모임 건설 강화;탁아 소모임을 중심으로 정신대 후원회등 자발적인 소모임들을 고민하자.보다 역량 있는 학교의 소모임 건설 주체와 여대협 중앙 실무와의 논의로 이에 대한 고민을 해내고 각 학교마다 전파한다.그리고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자기 학교의 상황에 맞는 소모임 건설과 운영에 대해 고민하자.

@@@여성문제 연구모임의 건설 강화;여연 학술 연석회의를 통해 여연의 건설 강화에 대한 상호 토론으로 여학단위 조직화의 가장 핵심인 여연의 건설 강화로 여학운의 발전을 꾀하자.

@@@과여학생회 건설,강화;총여,단여 회장님들의 가장 중심 고민이며 현 시기 기층강화의 가장 주된 요구이다.책임지고 고민할 수 있는 중앙 단위는 없으나 기층의 움직임과 요구를 최대한 파악하고 먼저 고민할수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만나면서 지도의 내용을 확보하자.그리고 단대를 지도해야 하는 대표자들의 주체적인 고민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5.투쟁사업

1)3/4월 윤금이 투쟁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자.

2)5월의 정세속에 여학운의 위치에서 5월 투쟁을 고민하자.올해는 탁아입법 투쟁을 앞두고 이때부터 다가오는 투쟁에 대한 학우들의 의식화 조직화 사업을 주도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다.

3)7/8월을 기점으로 반미 조통 투쟁을 적극 받아안자.

4)9/10월로 예상되는 탁아 입법 개정 투쟁을 내용으로 탁아소모임을 비롯해서 학우들의 의식화 조직화를 꾀한자.학내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탁아 입법 투쟁을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 가자.

6.연대 사업

1)탁아 연대;대탁과의 연계
2)여성농민과의 연대;농활을 기점으로 경북여농회와 연대한다.
3)지역 여성단체 연합;성대협 및 기타 여성 단체와의 연대를 모색한다.

7.행사 사업

1)여대협 단위 행사
@@@ 4월 간부학교;여대협의 출발을 알리면서 93년 여대협의 총노선을 확정하고 여학운에 대한 가부들의 결의를 다진다.
@@@ 출범식;대중적으로 제 4 기 여대협의 출범을 알린다.

2)각 학교 중심 행사 사업;각 학교별로 시기와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의 형태와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업들을 통일적으로 여대협 중앙에서 최대한 지도해보도록 시도하자.그리고 대표자 회의와,기획 연석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고민해보자.가장 원칙적으로 여학운의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보다 성과있게 사업을 벌여내기 위한 제안이다.

##각 학교 출범식
##대동학교,열린학교등
##대동제
##대동 한마당
##대중 강연회;여연 연석회의를 통해 내용과 시기를 조절한다.
##제안;1학기 5월 대동제 기간을 기점으로 "성"교육 강연회 실시
2학기 여성의 자주적 삶을 위하여—취업,경제적 자립,가사노동과 육아의 사회화 등을 소재로 한 대중적인 강연회 실시.

8.시기구분
3월;총노선 수립과정,운군이 투쟁
4월;간부학교,총연 대의원 대회,총노선 확정
5월;출범식,대동제 탁아 모금운동
6월;농활
7/8월;여름 간부학교,조통 투쟁,
9/10월;탁아 입법 투쟁
11월;선거

자주의 옥토
제4기
대구경북지역
여대생 대표자 협의회
만 세 !!!!

♥경산대 제 5대 자주총여학생회 총노선♥

1.전체 사업기조에 관하여

1)여학우의 현실을 근거로 여성문제인식에 힘써 자기 삶의 당당한 주인이 되고자 한다. —자주적 여학생회(청년 경산에서의 여성문제를 풀어나가는 고리를 여기서 찾는다.)

2)여학우와 남학우를 인간중심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남학우 교양과 아울러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한다.)

3)부문계열운동으로써 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일궈낸다.

ㄱ.총여학생회 강화—집행부의 단결과 교육의 강화로 일주일에 1회 교양 및 서로의 회포를 푸는 시간을 갖으며 돌려보는 일기장을 활용한다.이를 통해 중심부서 강화를 꾀한다.

ㄴ.일반간부에 대한 인식작업에 힘쓴다.—편지작업,책 독려보고 감상문쓰기,교육선전 등을 한다.

2.중심사업에 관하여

1)조직사업

ㄱ.과여학생부의 강화(운위 강화)

-운위의 정례화:기초적인 교양과 아울러 중심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유,운위 교양을 위한 커리를 마련한다.

-과내에서의 여학생부가 자리를 잡아나가게 하기위해 과내 사업에 대한 고민을 계속적으로 하며 지도해낸다.(학생회 사업에 여학생부 사업을 녹여낸다.)

ㄴ.학년 여대표 선출:가능한 과에서 시범적으로 선출된 여학생부장 중심으로 모아낼 수 있도록 한다. (학기초 여학생 상견례 준비-유인물 제작)

ㄷ.병원 여학생회 강화

-여학생회와의 간담회 개최(서로의 사업공유와 교양을 이루어낸다)

ㄹ.학술부내의 여연의 건설과 강화

-여성문제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폭을 높이기 위해 모아낸다.

-여학생 일꾼 및 과내로 들어가기 위한 인자를 마련한다.

2)인권복지사업(학내에서 여학우의 기본적인 인권을 향상)

ㄱ.여학생 휴게실

-여학우들의 최소한의 생활공간으로 시설확충을 통해 활용을 높여나간다.(사물함,난로,전화기,생리대 자판기,자료배치,선전)

-관리는 총여집행부와 과여학생부장이 함께 한다.

ㄴ.미장원

-여학우 의식조사를 기반으로 6호관의 장소확보를 우선으로 한다.

-업체나 직원채용의 형식으로 준비

ㄷ.화장실

-소리란:과 여학생부와 돌아가면서 담당(총여도 함께)

-생리대 싸는 휴지 마련

-고정선전 준비

-비누 설치(거울:2호관)

ㄹ.생리대 자판기

-복지기금으로 구입하며 총여에서 품절,고장상태를 관리하고

-수익금은 복지 장학금으로 한다.

ㅁ.여학우 인권향상을 위해 인복사업을 중심으로 설문작업을 한다.

-1년 설문작업의 기조를 잡는다.:시기별,사업별

3)학술사업:여성문제인식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사업

ㄱ.여성학 강좌 강의질 향상

지금까지의 여성학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문제점을 지적해나고 충분한 자료제시로써 방향성을 잡아나간다:강사채용의 문제로 발전

ㄴ.정기적인 강연회개최

시기와 내용을 적절하게 잡아나가는 게 중요하다.

학우들의 흐름과 동태를 올바르게 파악한다:한 학기에 2회

ㄷ.여성문제 연구 소모임 건설

지금의 상황으로써 과내에서의 여연에 대한 전망보다는 (점차적인 교양으로 제기) 인자들을 마련해 총여단위에서 중심적인 교육과 실천의 방도들을 마련해야 한다.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양커리,실천적인 성과등에 대해 고민

4)도서관에 여성에 관한 도서를 배치한다

활용방도를 높이는 고민과 아울러 책을 가까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총여내에도 책을 배치한다.

5)교육 선전을 담당한다.

1년동안의 교육선전의 기조를 잡는다.

여성의 무관심, 학내의 성차별, 성폭력, 연애문제, 외모에 대한 집착증,취업문제 등을 우리의 기조에 맞게 또 여학우의 현실에 맞게 교육한다

예)취업문제: 여대생 취업문제가 사회구조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저학년- 강연회, 자기 전망을 갖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를 일깨움
고학년- 간담회등을 통해 취업정보제공, 문제점(사례)은 공유

6)여학우 의식조사

사업을 시작하는 무렵에 필수적으로 되어야 할 부분이며 이외에도 교육사업의 한 방편으로 기조에 맞는 설문작업에 대한 계획 필요

연대사업-이 땅 여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1)성폭력_일상적인 성폭력에 대해 알려내고 본질과 해결의 전망을 내온다. (행사업속에서 녹여낸다.대동제, 학술제,함께 가는 학교, 강연회)

2)정신대 후원회를 공개 모집하여 그안에서 정신대에 대한 전반적인 교양과 아울러 실천의 장을 만든다.

문화사업-우리것 사랑하기 운동

1)선전의 내용으로 넣을 수 있다.

2)구체적인 사업의 근거가 있다면 사업으로 풀어나간다.(폐지 모으기:정신대 후원금)

3.1년 행사사업

-우리의 관점속에서 창조적으로 임해야 하며 시기적인 고려를 잊지말고 1년사업의 집중점을 찾도록 한다

3월-예비대학
4월-출범식
5월-대동제
6,7,8월-농활,조통사업
9월-대동제
10월-함께 가는 학교, 학술제
11월-선거

♥경북대 제8대 자주 총여학생회 총노선♥

"기층조직 강화를 통해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한다."

기본 과제

1. 단대 여학생회의 자립 자활력을 높여낸다.
2. 과여학생회 건설, 강화의 토대를 마련한다.
3. 학회와 소모임의 건설, 안착화를 이루어낸다.
4. 장기적 관점의 내용있는 간부혁신을 이루어낸다.

1. 단대의 자립 자활력을 높여낸다.

문제점

총여학생회가 대동학교, 대동한마당등 큰행사 사업들을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잘 치루어 왔다. 이것이 여학생회를 대중적으로 알려내는데 많은 역할을 한것은 틀림없지만, 그 이면에 단대 여학생회는 실무분담, 단순 인원동원에 그쳐버린 것도 많은것이 사실이다.

현재 단대 여학생회를 살펴보면, 단대 여학생회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인문, 사회, 농대 아직 단대 여학생회에 대한 인식이 미비한 사범대, 자연대, 예대가 있다. 그리고 법대나 공대처럼 기반없이 한 해가 지나고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되었다.

총여는 그저 내려먹이기식·행사치루기식의 부담을 단대에 주지말고 총여에서 사업 하나 덜 하더라도 단대 여학생회에서 할 수있는 사업들을 키워주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총여의 모든 사업을 각 단대의 현실적조건에 맞추어서 준비, 기획하고 이것의 성과물을 각 단대 여학생회 강화로 귀결되도록 해야 할것이다.

방도

1)중앙 운영위의 위상을 높여내자.

중앙 운영위는 경대 여학생회의 실질적 대의기구로 총여 사업을 가장 먼저 고민하고 결정하는 단위이다. 7천 여학우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는 총여학생회가 되기위하여 중앙운영위가 각 단대 여학우들을 대표하는 책임성을 잃지 말아야 할것이다. 그래서 중앙운영위 차원의 교양·단합을 지속적으로 이뤄내고, 중앙운영

위회의 또한 단대에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될 수 있도록 총여에서는 제안서를 정례화 해야 할것이다. 또한 중안운영위 회의에서 단대의 모범을 발굴하고 그것을 전파해야 한다.

2)지속적인 단대 하방및 간담회

중앙운영위회의 만으로는 편차가 심한 단대의 상황을 다 파악할 수는 없다.일상사업 중심으로 사업이 바쁘게 진행되다보면 단대에서 현재 무엇이 힘들고 어떠한 지점이 막히는 총여에서 파악 할수가 없게 된다.

매시기 사업에서 총여와 단여가 같은 감을 가져가고,각 단대별 특수성을 총여에서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꼭 실시 해야 할것이다.

3)세로 모임의 정례화,안착화

총여와 각 단여의 집행부서를 전문화 시키고,여학생회장으로 집중되는 사업의 고민을 각 단여 집행 부서장들과 함께 풀어 나가게 됨으로 단대 여학생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온다.

2.내용적 지도를 통한 과 여학생회 건설,강화

문제점

과 여학생회는 여성문제를 내용으로 총여나 단여를 실질적으로 학우들에게 알려내고,과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자주적 대표기구이다. 그러나 과 여학우의 대표자로써 여학생회장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과 집행부의 일원으로 내지는 소모임장으로써의 역할 밖에 못하고,단여나 총여 행사사업에 있어 인원 동원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현재 경대내의 단대중 인문대,사회대,농대가 여학생회 체계인데, 이 중 몇몇과-사학과,불문과,영문과,지리과,사복과,식품공학과-는 집행부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몇몇과에는 과 여학생회장이 과여학사업과 여연사업까지 함께 해나가고 나머지 과는 과여학생회장의 지위만 있을뿐 그 역할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사범대·자연대는 운영위가 부학생회장으로 그 역할 규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우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여학생회를 과에서부터 건설·강화해 내고,과여학생회 주체들의 역할을 지도해 냄으로써 기층에서부터 힘을 가진 총여학생회 체계를 만들어야 할것이다.

방도

1) 과여학생회를 전문적으로 고민할 단위 마련

총여와 단여의 전체기조 속에서 과여학생회의 구체적인 사업까지 함께 고민하고 과여학 구성원의 교양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단위를 마련하여 과여학에 대한 지

속적인 지도를 보장한다.

2)단대 실정에 근거한 과여학생회 사업지도.

과 여학생회를 건설해내고 그 모범 전파를 중심으로 해야 할 단내, 그리고 과 여학 주체의 지위와 역할 규명에서 부터 시작해야 할 단대, 단대여학이 없는 곳에 대한 인자 발굴까지 단대의 현실적 조건을 고려해서 지도해낸다.

3)과주체를 튼튼히 세워내고 지속적인 여학생회 일꾼 재생산을 해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한다.

3.여연·탁아 소모임등 여학우의 자주적 모임 건설·안착화

문제점

여성문제 연구 소모임이 지금까지 많이 건설되었고 안착화 되었지만 아직 각 단대에서의 지도력 보장이 안되어 개개 여연별 자력갱생식으로 운영되고, 작년 몇몇과에 건설되었던 탁아 소모임 또한 지도의 내용이 없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제 여학우들이 그들의 생활 가장 가까이서 느낄수 있는 여학생회가 되기 위해서도 이러한 다양한 소모임 건설 지도를 구체적 내용으로 해내야 할 것이다.

방도

1)대중적 행사사업을 통한 소모임건설

대동학교나 대동한마당등의 큰 기획사업이 그져 보여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참가한 학우들을 소모임에 들게 하고 지속적으로 단대여학생회에서 과여학생회에서 여성문제에 대한 고민을 발전시키게 한다.

특히 단대여학생회나 과여학생회가 없는 단대에서 총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내는 것이 필요하다.

2)소모임 단위 주체(여연부,탁아부)의 내용적 지도

각 단대의 특수성에 기반한 커리와 내용으로 운영지침서를 발간하고 관리지도한다.

4.올바른 관점에 입각하여 여학생운동을 풀어나갈 간부마련

문제점

여성문제에 기반한 특별 자치기구로써 여학생회의 중요성과 책임성을 지닌 간부의 재생산 이 참으로 안되고 있다.대중사업에 지치고,여학생운동의 신심부족으로 한해 사업 이후 떨어져나가는 간부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사업속에서 교양의 내용을 찾고,여학 간부중심의 전문적 교육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야한다. 책임성과 헌신성을 기반으로한 간부만이 여학우들을 바로 지도하고 여학생회의 발전을 내어 올 수있다.

방도

1)간부중심의 교양교육을 장기적으로 실시한다.

총여단위,단여단위로 여학일꾼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상시적으로 진행하며,각 부서별 세로모임단위로도 실무교양과 여학생운동에 대한 교양을 실시한다.

2)끊임없는 간부의 생활 혁신

사람중심의 사업작풍으로 끊임없는 생활혁신의 내용들을 마련한다.

—조례,종례,회의 시간의 안착. 여학일꾼 전원 조례 정례화. 월별,주별 사업 계획서,평가서 정례. 생활총화.

3)간부정책 연구단위 마련

♥안동대 제9대 열린 총여학생회 총노선♥

"여학우들을 사업의 주체로 세워 여학우들의 자주적 삶에 기여한다."

1. 기본과제

..

하나, 간부의 혁신을 꾀한다.

실천방안 : 지금까지 총여 간부들의 모습은 여성문제나 여학생회에 대한 깊은 고민없이 행사 치루기식 사업에 매몰되어 왔다. 그래서 여학우들을 교양시키거나 여학생회에 대해 올바로 인식시키지 못했다. 이러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학생회 집행부의 정기적인 교양 학습을 통해 심도깊은 고민을 하여 여학우들을 만남에 좀더 내용성 잇게 다가서야 하겠다. 또한 생활에서 부지런하고 성실한 모습은 여학우들을 여학생회 두리로 묶어낼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하루하루 자기자신을 혁신한다.

두울, 단대 여성부의 내용적 강화

실천 방안 : 기존의 각 단대에는 여성부라는 이름만 있었지 여성부장이 부재한 곳이 대부분이었고 있다하더라도 그 활동성이 거의 미비했다. 93년에는 예체대를 제외하고는 단대 여성부가 건설되었다. 다른해 보다는 좋은 여건이 주어진 만큼 단대 여성부강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여학생회의 구체적 고민이 요구된다. 먼저 중앙위원회의 정례화를 통해 여학생회 모든 사업을 함께 해나가고 계속적인 교양학습을 통해 그들이 주체적으로 설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가능성이 많은 단대를 설정하여 타단대의 모범으로 세우는 방도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세엣, 여학생 운동에 대한 폭넓은 인식의 장을 마련한다.

실천방안 : 지난해 대동제 여랑 한마당과 후학기 여성 주간을 마련하여 여학우들의 참여를 마련했지만 내려주기식 행사에서 여학우들이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을 주지 못했다. 이에 올해 처음으로 일꾼학교를 개최하여 여학생 대표들에게 여학생 운동에 대해 올바로 인식시키고 새내기들에게는 새내기 정책의 차원으로 열린학교를 열어 여성문제등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외에 여학생회나 여성문제 소모임을 시범적으로 꾸려내며 목요영상의 계속적 실시로 인식의 장을 넓히고자 한다.

2.93년 상반기 사업 계획

1)시기별 사업

3월 5일 1차 운영위
8일 세계여성의 날(기념품 배포,유인물 제작)
11일 여학생 대표자 회의(각 과,각 단대)
목요 영상회(은마는 오지 않는다)
설문지 조사 작업(8대 평가,9대에게 바란다)
24일 연대 진군식
31/4.1 여학생 일꾼 학교

4월 12/14일 자주여성 민주남성 학교
19/20일 4.19.학술제
21/23일 여학생회 회보 발간
26/5.1일 김영균 열사 추모제

5월 대동제

2)일상사업—목요 영상
여학생 대표자회의
여학생회 운영위 개최
여학생 복지 사업 강화 등등

♥♥계명대 제 9 대 민주 총여학생회♥♥

1.사업 방향

인간적인 사회를 열망하고 실천한다면,모든 진보 세력과의 연계속에서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의 질적 의식 향상을 책임지는 구심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첫째,기존 단대,과의 토대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사업의 통로가 단절되고 기층과의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업의 가장 큰 한계라고 보았을 때 이제 강활라는 실질적인 사업을 만들어내야 할것이다.이러한 토대가 마련되었을 때 광범위한 여학우 대중을 대상으로 학원에서부터 여성문제의 본질이 밝혀지고 그 해결의 전망도 함께 고민하는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둘째,사업에 있어서 행사 위주의 일회적인 사업 풍토를 쇄신하고 이제는 학우들과 결합하여 함께 만드는 사업,계속적인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일상에서 여학우들이 느끼는 사소한 고민의 해결에서부터 출발하여 내용성을 가지는 사업의 창출이 중요한 관건이다.

셋째,여학생운동의 전문 일꾼이나 여학생 운동의 확고한 주체가 없었다.여학생운동을 책임지는 동력의 부족으로 몇 사람만이 많은 학우대중을 이끌어 낼수 없음을 인지하고 전문 일꾼을 배출해 여학생 사업이 매회 단절되는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자.

현 계대 여학생 운동은 그 기반의 미약함을 극복하고 토대의 강화를 가져와 뿌리내리는 여학생운동의 대중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2.93년 사업 계획

1월—전체 사업 기조 계획 마련,집행부 체계 안정화,골간 체계 안정화

2월—예비대,방중 사업 평가,개강 이후 활동 구체적 준비

3월—총여 사업을 학우들과 함께 공유하며,학우들이 총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한다.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며 사업에 반영해내고 전체 사업을 학우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총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인다.

#각 단위의여학을 통해서 탁아 자원봉사자와 후원회를 조직하여 학우들이 총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출범식—총여학이 93년을 끝까지 책임지고 사업을 해나가겠다는 결의를 학우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사로 학우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이날이 어떻게 유래되었고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알려낸다.

#생활 문화 운동

4월—각 부서 사업들이 안정되게 진행되어야 할 시기이다.4.3,4.19 등 기념일이 많이 있는 달로 이런 기념 행사가 집회위주에서 탈피하여 역사적 사건을 현샐에서 재조명하고 대학인이 얻어야 할 교훈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도록 한다.

5월—학교 전체가 대동제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나 행사에 접하는 시기로서 대동제에 가장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그외 각기 많은 기념일을 재고 하면서 학우들이 역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한다.

6/7/8월—1학기 사업 정리,평가,2학기 계획,여름 농활

9월—여학생회 활동이 여성 대동학교로 표출된다.

#여성 대동학교—각 단위 여학을 중심으로 여성문제에대해 고민하고 연구해오던 결과들을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발표함으로써 여성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선언하고 행사를 통해 학우들을 조직화 해낼 수 있도록 한다.더불어 풍물,노래,극,문화 행사와 일상적으로 진행해오던 생활문화동의 성과들을 공유하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자

10월—각 단대 대동제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총여 전체 사업을 평가하고 여학의 전망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해오던 결과들을 정리해 나간다.

♥♥영남대 제 8대 총여학생회 총노선♥♥

1. 사업기조

제 8 대 총여 사업 기조는 기존의 총여 활동이 학우들의 관심과 지향은 무시된 채 학생운동과 기층 여성운동의 지원부대로서만의 의미를 지닌것에서 탈피하고 정치 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방적으로 규정되었던 학생의 활동에 내용을 변화시키고자 가지는 학생회로서 위상과 역할에 맞는 사업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것이 구체적 사업영역속에 어떻게 녹아 들어가야 하는가를 세가지 과제로 나누어 보이고자 한다.

1)학원개혁의 과제

직업양성소로 전락하고 있는 대학이 올바른 자신의 지위를 갖도록 하기 위해 가장 중심이 되는 과제이다.

ㄱ.진보적 여성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활동.

학원내에서 조차도 씩씩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여학생을 여자답지(?)못한 여자로 취급하고 숙녀다운(?)여성이 되기를 강요하는 '여자 길들이기'의 허위의식은 여학생들이 쉽게 활동에서 소외되거나 극단적으로 생물학적인 여자의 특성마저도 포기하고 슈퍼우먼이 되기를 강요한다.여학생들에게 진보적인 의식과 실천성의 획득보다 체제내적인 이념에의 안주를 사회적 노동에의 참여로 인한 자아성취보다 결혼을 통한 계층상승 욕구라는 허위의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대학과 여대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단초는 대학인들이 진보적 학문을 연구하고 그것을 학원내에 확산시키는 것이다.이러한 방안으로 여성문제와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고 올바른 여성의식의 확산을 위해 주변의 많은 여성 교육기관을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개설해야 할 것이다.또 여연의 연구결과를 각 단대의 특성에 맞게 준비한 내용과 형식의 세미나로 채워지는 학술제를 통해 발표하고 여연의 정보 교환과 토론자료,연구 자료들을 공급하는 여연통신을 정기적으로 발간한다.제도적인 측면에서 〈성과 사회〉 과목의 내용을 강화하고 여성 상담소 개설 설문조사등을 통해 여대생의 의식전반에 대해 연구 조사한다.

ㄴ.건강한 대학 문화를 형성하는 활동

무의식적으로 우리에게 침투해 있는 상업주의적 개인주의적 생활을 벗어버리고 대학인의 생활을 생산적인 문화로 전화해야 한다.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안고 있는 무관심,개인주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진보적이고 공동체적 생산적인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도서관 메뚜기 살리기 운동, 후배에게 책 물려주기 운동, 신문보기 운동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또 대동제 기간에 천마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리 문화제.벼룩시장등을 개설하여 건강한 대학문화의 장이 되도록 한다.그의 창작 교실을

열어 다양한 여성문화의 개발과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

ㄷ.진보적 사회진출을 통해 사회 변혁을 이루어 가는 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

여학생에게 있어 취업의 문제는 남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더 심각하다. 자본주의 사회는 여성들이 사회로 진출하여 물적 토대를 구축함과 동시에 여성=가정영역의 담당자임을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통해 강요함으로써 여성취업을 가로막고 있다.여성의 취업현실은 암담할 뿐만 아니라 취업후에도 사회적 노동에서의 차별적인 저임금과 가사노동의 전담자로서의 이중적인 착취를 당한다.즉, 남성=전문기술 사무직,여성=단순 사무직 보조직으로 이분화되고 같은 직종이라하더라도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저임금을 받음으로서 노동력의 가치가 평가 절하된다.여성은 다시 한번 사회에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라는 세련된 지배 이데올로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극복을 위해 총여는 진보적 여성의식을 확산시키고 올바른 여성관을 가지고 사회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진출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상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회진출모임을 분석하고 여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 진출모임을 만들고 사회진출에 대한 토론과 세미나를 통해 여성취업에 대한 올바른 모색과 실질적인 준비가 되도록 한다. 또 취업 홍보실 및 각 취업 정보기관을 통하여 취업 정보 게시를 상시화 하여야 한다.

2)조직적 과제

여학생들의 이해와요구를 대변해 주고 총여학생회의 골간체계가 되는 과,단대 여학생회 혹은 여성부를 각 단위의 특성과 조건에 맞게 강화시켜내고 그 성과들을 총여가 안아 올 수 있어야 할것이다.활동의 예는 다음과 같다.먼저 여학생들이 소수인 단대(법대,상대등)에서는 무리하게 과 단대여학을 꾸리기 보다는 과,단대의 여성부로 편재하여 각 학생회와 유기적인 관계속에서 활동을 해나가는 것도 좋을 듯하다. 또 모범이 되는 여학생회 여연활동의 사례를 발표하고 그를 통해 각 단위에 맞는 다양한 사업의 예를 제공한다.그리고 총여 집행부와 각 단대 여학 혹은 과 여학 집행부와 연석회의를 통하여 과,단대 여학의 활동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기간의 일정하지 못했던 탁아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총여주위로 조직화시켜내어야 할 것이다. 활동의 예들이 파편적이라고 생각되나 이러한 활동부터 시작하여 총여 및 단위 여학생회가 영대내에 여성 문제를 극복하고 올바른 여대생의 상을 만들어가는 틀로서 뿌리내려야 할 것이다.

3)정치적 과제

현시기에서 대학인들이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요구되는 정치적 의식을 갖추는데 가투나 교투의 의미는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실제 학우들과 만나고 함께 참여할수 있는 정치 공간도 어느 특정 계기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공간 에서도 존재하므로 이를 올바로 집중시켜내는 것이 필요하다.일상적 정치활동을 갖추기 위해 보다 다양한 계층의 학우들이 정치공간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으로서의 정치사업과 확장된 정치공간에서 펼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실천 양태 창출이 요구되어진다.학생대중 사이에"압도적 다수"의 일관된 정치적 견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지않고 그로인해 학생회는 단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자신의 견해를 가질 수 없다.이에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존중하고 보장하여야하며 일관되고 안정된 정치활동은 정치조직에서 먼저 고민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즉 학생회에서는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조직의 개입과 참여를 유도하며 그들을 통해 정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내 진보층을 규합하는 활동으로 진행되었을 때만이 정치조직이 올바로 세워지고 학생회 또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전문성이 있는 학내 기층단위,부문운동과 연계를 맺으며 그들을 주체로 세워 내어야 한다.예를 들어 탁아활동은 학내 봉사 동아리가 주체가 되도록 하고 일상활동으로 정착되도록 총여는 다양한 정보와 연계작업 등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를 하면 학생회는 대학을 진보적 이데올로기의 진지로 구축하기 위해 일상적이고 다양한 정치 활동의 영역을 개발해야하며 이는 정치조직,부문조직,전문성있는 기층단위와의 연계를 통해 더욱 강화될수 있다는 것이다.

2.월별 사업

1월—전체 사업 기조와 계획 마련,부서 1년 사업 계획 완료,집행부 체계 안정화 골간 체계 안정화

##방도:간부학교 / 집행부 교양 / 예비대 준비 / 확대 간부 수련회

2월—예비대 실시,방중 사업 평가,개강 이후 활동 구체적 준비

3월—총여 사업을 학우들과 함께 공유하며 학우들이 총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한다.

##방도:설문조사와 인터뷰 / 여연이나 탁아 자봉 및 후원회 조직화 / 출범식 / 3.8.세계 여성의 날

4월—각 부서들이 안정되게 진행되어야 할 시기.4.3,4.19 등 기념일이 많이 있는 달로써 이런 기념일 행사가 집회위주에서 탈피하여 역사적 사건을 현실에서 재조명하고 대학생들이 얻어야 할 교훈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

5월—학교 전체가 대동제 기간 동안 다양한 문화나 행사에 접하는 시기로써 대동제에 가장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그외 각기많은 기념일을 재고 하면서 학우들이 역사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로 마련한다.

##방도:대동제 / 5.18 기념제 / 전대협 출범식

6/7/8월—1학기 사업을 정리,평가하고 방중 2 학기 사업을 계획한다.

여름 농활

9월—여학생회의 활동이 총화되어 '또 하나의 학교'로 표출된다.

##방도:또 하나의 학교—각 단위 여연을 중심으로 여성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해오던 결과들을 다양한 내용과 형식으로 발표함으로써 여성문제에 대해 집중적 으로 선전하고 행사를 통해 학우들을 조직화 해낼 수 있도록 한다.

10월—각 단대 대동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총여 전체 사업을 평가하고 여학의 전망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해오던 결과들을 정리해 나간다.

대구대,동국대,교대는 사정상 싣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모범사례를 싣습니다♥♥♥♥♥

학교 마다 각각의 모범들이 많습니다.그런데 자료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지 여대협 실무자의 게으름 탓에 모든 학교의 모범을 골고루 실지 못하고 경산대와 경북대의 모범 사례만 실게 되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모범은 굳이 자료화하지 않더라도 다른 학교에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학교마다 모범 창출의 기수가 되기위해 노력하면서 서로의 모범을 자기 학교,자기 단위에 맞게 받아 안읍시다.

1.윤금이씨 투쟁의 모범—청년 경산대를 배웁시다!!!

1)평가:윤금이씨 투쟁을 통해 본 경산대의 모범은 여학생회 단위에서 정치 투쟁을 기층 학우들 한사람,한사람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으며,그 시기의 중심 사업으로 받아안고 쟁점화 시켜 낼 수 있는 지를 훌륭하게 보여준 사례이다.또한 이 투쟁을 이 시기 전체 투쟁 기조인 쌀 수입 개방 저지 투쟁과 팀스피리트 훈련 저지 투쟁을 함께 받아 안음으로써 학생회 중심으로만 벌여왔던 정치투쟁을 어떻게 성과적으로 받아 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투쟁 내용과 방법: 92년 10월 윤금이씨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단지 선전 정도 밖에 하지 못했고 서명운동도 힘있게 벌이지 못했었다.이후,93년 2월 27일 1 차 공판에도 방중인 이유로 총여 집행부 세 명 밖에 가질 못했다.그러나,3.2 / 4일까지 경주엥서 열린 예비대학에서 윤금이씨 사건의 각 방별 선전과 전체 선전을 통해 새내기들에게 알려 내고 각과 여학생 부장님들을 통해 서명작업을 벌임과 동시에 둘재날 전체 서명 작업을 해서 큰 호응을 얻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차 공판인 3월 10일에는 총여 집행부 3인과 식품과학과 여학생 부장님이 투쟁에 참가했고 3차 공판인 3월 24일에는 새내기들과 여학생 부장님 중심으로 13명이 참가했다.그리고,공판 투쟁에 다녀온 후의 느낌들과 미군에 대한 솔직한 생각들을 대자보를 통해 학우들에게 알려내었다. 3차 공판시 학우들을 조직화하는데는 각과 여학생부장님들의 노력이 컸고, 주한미군 범죄 사례들과 한미행정협정의 부당성에 대한 사전 교양들을 해내었다.

화장실을 중심으로 여성의 소리란을 통해 지속적인 윤금이씨 공판의 결과들을 알려내고 3.20.일 여대협 차원의 윤금이씨 사건 가두 서명에도 여학생 부장들과 함께 참여해서 시민들을 만나 열심히 설명하고 서명을 받으면서 많은 결의를 다지고 힘을 얻었다. 시민들 역시 케네스 마클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요구했고 주한 미군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분노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윤금이씨 사건이 마무리되어가고 팀 스피리트 훈련 재개와 북한의 핵사찰 문제,쌀 수입 개방 압력등이 중점적으로 떠오르게 되자 우리는 윤금이씨 투쟁의 맥을 이어 이 나라에서 미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내자는 의견이 모든 부서장들의 4월 사업 기조로 나오게 되었다.이에 4월 12일부터 16일까지 반미 주간으로 설정하고 조촐하게 문화행사와 선전들을 해내고 학우들을 만났다.

12일과 13일에는 살수입 개방 압력을 공유하며 우리떡과 감주 판매를 했었고,14일과15일에는 반미 영화 "은마는 오지 않는다"를 상영했다.또한 선전 작업을 통해 학우들에게 미국의 본질을 명확하게 알려내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본다.

선전 내용은 ㄱ.북한 핵사찰,팀스피리트 훈련 재개 배경
ㄴ.주한미군 범죄 사례와 한미행협의 개정
ㄷ.쌀 수입 개방 압력과 우루과이 라운드의 현재적 의도
ㄹ.수입 먹거리의 폐해,수입 상표 전시회

학우들은 자신이 직접 현수막도 쓰고 선전을 읽으며 삼삼 오오 이야기를 나누었고 깊은 내용은 못 담았더라도 미국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그리고 우리들의 이러한 투쟁들이 하나 하나 모여서 윤금이씨 살해범— 케네스 마클이 주한 미군 범죄사상 유례없는 무기징역형을 받게 하였다.앞으로는 더 이상 이땅에서 미군의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윤금이씨의 잔혹한 죽음을 생각 하면서,이번 반미 주간에 그린 건물 두 곳 바닥의 성조기를 닳아 없어질 때까지 열심히 밟고 다닐것이다.이제 윤금이씨 투쟁의 성과를 학우들과 널리 공유하고 올해 반미 자주화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다.

##학내 방송국과의 결합—반미 주간 동안 우리의 내용성을 매일 방송하게 했고 윤금이씨 투쟁의 성과도 함께 방송하여 학우들과 공유했다.

##학우들과 현수막 쓰기—ㄱ.케네스 마클에게 한 마디
ㄴ.미군이 철수하면 그 땅에 무엇을 할까요?
ㄷ.미국이라면 껌벅 죽는 정부에게 한 마디
ㄹ.통일이 되면 하고 싶은 일

비록 욕이 난무하고 장난도 섞인 현수막 쓰기였지만 학우들이 직접 참여 할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

3)뒷말,그러나 밝히고 싶은 말

3차 공판에 많은 학우들과 참여하기 위해서 학교 본관측에 차비를 지원 받고자 갔

다.그러나 순순히 지원해 줄리가 없었지.그래서 총여회장님이 서울 공판 투쟁을 갔다가 붙잡혀서 안내려올 거라고 위협(?!)을 했더니 본관에서 꼼짝도 못하고 차비를 내주었답니다.그날 이후,학교 본관에서는 총여학생회를 가장 두려워 하게 되었다지요,아마.이런 모범은 꼭 따라 배웁시다.

2.새내기 행사사업의 모범—민족 경북대를 배웁시다!!!

처음부터 다시,그러나 새롭게

동지를 질타하는 내 혓바닥은 옳지 않다
다시 말을 길들이라 눅눅한 습기가 차고
모든것이 곤두선 곳에서 배움받은 언어는 미련없이
버려야 하리라 굳이 뒤틀린 언어로 꿈꾸는 반란은
털뽑힌 반란이다 수입한 반란이다 정찰가격제
딱지를 이마에 붙인 그럴싸한 상품일 뿐이다 다시, 처음부터
이 지겨운 복습을 되풀이 해대는
신물나는 틀이다.주형이다.거푸집이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예비대학.신입생 환영 모꼬지 등 새내기를 위한 사업들이 즐비하게 이어지면서 그 마지막 장으로 제4기 자주여성 민주남성 대동학교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갓 입문한 초년생들에게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일고민을 던지고 왜곡된 교육과 사회문화 속에서 길들여진 자신의 모습속에서 성차별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서 위상을 가지는. 교양학교로서의 진행을 올곧게 실행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그러나 새롭게'이것을 우리의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대동학교는 아직도 무르익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어느 정도 대중기획 사업의 모범을 창출한 것이 아닌가라는 자위적인 평가도 해봅니다.여기서는 대동학교를 준비했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복현 전체의 노력을 하나로 모으고 이에 성과를 참가했던 새내기들이나 준비했던 일꾼들.모두에게 귀결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그 출발의 첫지점은 3기까지의 대동학교를 평가하면서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던 것부터 해결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평가할때 으레껏 지적되는 부분이 기층과 같은 감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문제입니다. 과,단대간부들이 하나의 행사를 치루고나면 푸념처럼 하는 말이 나는

인원동원의 기수마냥 사람을 모으는 데 급급해 쫓겨 다녔다라고 하고 또 중앙간부들은 실무하중에 가랭이가 찢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이는 기층과 사업의 기획에서 집행.평가까지 같은 감으로 이루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이러한 부분을 혁신의 과제로 놓고 이제는 중앙과 단대가 어떤식으로 결합하고 역할분공을 이루어내는 문제와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행사의 의의와 내용을 올바르게 공유하고 스스로가 힘찬 결의속에서 대동학교에 임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축소 시켰습니다.

쌈박한 행사의 기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비과정을 학우들과 함께 해들어가고 그들을 참여의 대상으로서의 인식이 아니라 주인주체로 세워내는 과정을 튼실히 준비해 들어가는 것이 소중한 것임을 명확히 하며 준비 주체인 재학생들이 여학생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과정과 자신이 활동주체로 각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재학생 교양','대동학교 설명회','교사모임'등 교양시간을 준비일정속에 배치시키고 단대의 자립자활력을 높이고 핵심적으로 대동학교를 기층과 긴밀한 결합속에서 준비해나가는 단대간부들이 자리매김을 해나가기 위해 그 부서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대동학교를 준비해나가는 한 부분씩을 맡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 하나에 대한 설명을 하면.

*재학생교양-지난 시기 대동학교의 성격이 새내기 교양학교라는 것에 국한되어 재학생의 참여가 사 ㅐ내기들을 챙기기 위한 사람으로 좁게 생각되었고 자연히 대동학교에 참여하는 재학생에 대한 교양이나 배려가 전무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재학생들을 방치되었고 결과적으로 대동학교 행사시에 재학생의 참여태도나 규정력 문제가 전면ㅇ드러나게 된 것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동학교 의의.목표. 일정공유.재학생이 지켜야 할 수칙

*대동학교 설명회-대동학교 설명회를 개최한 이유는 행사에 관심이 있거나 참가할 사람들이 그 행사를 더 잘 준비하기 위해서이고 또 우리 학우들에게 대중적인 행사홍보를 위해서 였습니다.그 내용으로는 대동학교 설명회의 의의,대동학교의 의의와 목표,대동학교 기획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재학생 참여 보장과 규제문제등

*교사모임-새내기들과 함께 참여하는 교사들을 지도,교양해내고 강연 후 분임토의와 대동학교 이후의 지속적인 동창회모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게 제기되어 교사모임을 갖게 되었고 교사모임을 통해서 교사로서의 자세,일정공유,강연에 대한 기조토론 및 설명을 하고 직접 교사들이 교안작성의 기조마련을 고민했습니다.

*부서별 세로모임을 통한 역할 분공-세로모임을 통해 대동학교를 준비했던 부서는 선전,여연,총무.기획그리고 작년 동창생들 모임이었습니다.부서의 전문성이 대동학교

의 주체적인 준비로 이어졌는 가는 약간은 회의적이기도 하지만 이제는 세로모임이 안착화 되었다는 것과 앞으로 세로모임의 내용에 다한 고민을 구체적으로 해들어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얻었다는 성과적인 부분을 얻었습니다.

♥♥♥♥대구경북지역 여성단체♥♥♥♥♥

평등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대구 경북지역의 여성단체를 소개 합니다. 우리 여학생회 일꾼들이 대학내 여성문제들을 중심으로 여학우들의 자주적인 삶과 평등한 대학생활을 만들어가기 위해 일하고 있듯이 사회에도 더욱 어려운 조건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성단체가 있습니다.이러한 여성단체들은 현재 여학생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일꾼들이 졸업후에도 더많은 애정과 노력으로 활동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구여성회
함께하는 주부모임
경북여농회
대구 여성의 전화(애린회)
성대협
대탁연

대구 여성회(1988.1.23.창립)

1.대구여성회의 목표

가정이나 일터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받는 모든 차별과 억압을 극복하고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하는 여성들의 자주적 모임입니다.

성차별 없는 사회,일하는 여성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들의 터전입니다.

2.활동 내용

교육활동;여성문제 인식을 높이는 여성학교/각종 토론회,세미나/회원 시사 토론회/도서 소장 및 대여
홍보 활동;회지 "대구여성"발간/각종 자료집 발간
문화 활동;문화 행사를 통한 홍보활동/교육용 비디오,건전 비디오 대여
조사 연구 활동;지역의 다양한 여성문제 조사,발굴 연구 작업
상담 활동;노동 상담을 위주로 한 상담
연대 활동;여성문제의 해결과 민주사회를 앞당기는 타단체와의 연대활동
소모임 활동;7~8명을 평균 단위로 5개 소모임이 있고 전체 회원의 수는 6~70명이고 후원 회원이 100여명이다.
장작불(독서 토론반)
건강한 방송만들기 주부모임(t.v. 모니터반)

여성문제 연구반(이 땅의 딸로 태어나)
놀이 문화 연구반(신명내고야 말리)
올바른 소비 활동을 위한 주부모임(계획 중)

3.93년 사업 계획
중점 사업;성폭력 추방 사업
교육 사업;한국 여성 연합에서 중심으로 하던 것을 지역에서 지역의 실생활과 밀접한 활동의 하고자 한다.
조직 사업;소모임의 개편,건설로 내부 역량 강화에 보다 많은 투자를 하고자 한다.
일정;6월—의정활동 감시반 결성을 위한 시의회 여성 지도자 초청 강연회
여름방학기—어린이 대상 환경 교육
9월—여성 대회
기타—일상 사업

4.대구 여성회 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회지 회원 활동/정회원 활동/후원 회원 활동/등으로 함께할 수 있고 여러 소모임을 할 수도 있음.

대구 여성의 전화(애린회)

1.건설 과정—86년 5월 대구지역의 여교수 몇 분이 여성 중심으로 이웃사랑을 목표로 한 자금확보 작업을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87년 4월부터 상담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2.활동 내용—대중적인 여성교양과 매맞는 아내를 중심대상으로 한 상담을한다.그간 몇년의 활동경험이 쌓이면서 명실공히 성폭력 상담소로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다. 현재 기혼여성이 상담의 다수를 이루고 있고 미혼 상담과 남성들의 상담도 늘고 있다.
3.상담 내용—전화를 통해 먼저 얘기를 듣는 과정을 거친다.상담자가 얘기를 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발견하고 스스로의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데 가장 주된 목표를 잡고 있다.아주 급박한 상황일때—매를 맞아

위기 상황까지 갔을 때 법적인 절차를 도와주고 여형사 기동대와 결합해서 성폭력,아내구타등을 막기도 한다.

4.상담 자원 봉사자가 필요하다—졸업이후, 회사원,무직자,주부들이 주되게 활동하고 있는데 많이 부족하다.상담 자원 봉사자는 일정 교육을 받으면 정회원이 되고 활동을 할수 있다.자원 활동은 주당 1회를 한다.오는 9월에 교육일정이 계획되고 있다.

##교육내용—가정폭력의 실상과 대책/현대 사회와 여성/현대 사회의 가정,문화,사회의 문제/상담이론/여성과 가족-부부 관계/여성과 가족/여성과 일/인간 발달과 자아 현실/여성문제-현대사회의 성과 성폭력/여성관련법의 내용과 문제점

함께하는 주부 모임

주부를 주 회원으로 40대 이상의 주부들을 주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환경,식탁공해 추방 운동을 중심으로 교육 강좌등을 한다.

성대협(성폭력 대책 대구 시민 단체 협의회)

1.결성 과정

91년 11월 부터 준비되기 시작했고 92년 2월 22일에 발족했다.대구 여성회가 앞서 주도하면서 "성폭력"의 심각성과 이를 해결하고자 함에 공감하는 단체들이 모이게 되었다.

2.목표

하나:대구 지역의 성폭력 전담 상담소 설치

두울:성폭력 특별법 제정

3.93년 상반기 계획

6월 2일 예정:"외도를 통해본 올바른 성문화" 강연회

특정한 시기적 사안에 대한 공동활동

4.성대협 가입 단체

대구 여성회,대구 여성의 전화,함께하는 주부 모임,대경 여대협

##현재의 성폭력 상담활동을 대구 여성의 전화가 전담하게 되어서 성대협의 한가지 목표가 달성되었고 성폭력 특별법은 올해 국회 투쟁으로 준비되고 있다.이것이 이루어지면 원래의 두 목표가 달성되기 때문에 한시적 단체로써 성대협의 해소 혹은 다른 대체 목표를 잡고 계속 운영될지가 논의 되어야 한다.

경북 여성 농민회

1.경북 여성 농민운동의 경과

89년 경북여농회 준비를 위한 소모임을 시작으로 준비모임,교육

90년 경북 여성 위원회 결성

90년 경산군 들불 여성농민회,청송군 현서면 여성농민회 결성

92년 2월 24일 총회에서 경북 여성 농민회로 조직 개편

2.경북 여성 농민운동의 현황과 과제

도를 중심으로 각 회원,활동가들이 산재해 있고 지역에 따라 군,면,마을 모임이 실정에 맞게 꾸려지고 있다.(상주-한마음회,경산-들불 여성농민회,청송,현서-여성농민회,의성 동변동-마을 여성농민회)

초창기 도를 중심으로 도구심을 튼튼히 꾸려나가면서 교육,선전,조사 등을 통한 각 지역 단위 군,면,마을 여성농민회 조직 활동을 지원한다.

이제 경북 여성농민회는 조직을 실정에 알맞게 개편하고 활동가들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면서 지역대중에 기초한 명실상부한 여성농민 대중조직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내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아울러 군여성 농민대중조직화와 활동의 모범을 세워내야 할 시점에 서있다 하겠다.

대구 지역 탁아소 연합회

1.연혁

80년대 전국에 저소득 맞벌이 부부를 위한 비영리 탁아소 운영이 민간에서 활성화

되기 시작했다.이에 대구지역도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 그중 탁아 운동의 성격을 띤 5개 탁아소의 교사조직이 88년 3월에 만들어졌고,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활발히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90년 10월 대구지역 탁아소 연합준비위를 꾸리게 되었다.하지만 계속적인 재정난과 교사난으로 92년 2개의 탁아소(민들레,나눔 탁아소)가 문을 닫게 되고 참사랑도 최근에 문을 닫고 다른 지역에 이전문제를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92년부터 참관단체로 있던 감나무골과 93년 대탁에 새로 가입한 디딤 아가방,기존의 배꼽,달구벌과 함께 4개 탁아소가 대구지역 탁아 운동에 복무하고 있다.

2.주요활동

지역내 주민 의식화,조직화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활동

민주적 아동 교육의 정립을 위한 교육활동

지역내 타 단체와 기타 민민운동권과의 연대활동

탁아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탁아 활동에서 요구되는 내용에 대한 기존 활동가와 선진 활동가의 훈련과 교육활동

3.평가와 전망

계속되는 개별 탁아소의 재정난과 교사난으로 연합회의 성격을 띨만큼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즉 탁아운동의 다양한 성격들을 포괄하지 못하고,개별 탁아방의 자모회,자원봉사자,아동보육에 매몰되어 민민운동권과의 연대,지역주민 의식화,탁아운동의 확산들을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하다.앞으로 대구지역 탁아소 연합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여대협은 뜻있는 활동가들의 교사로서의 투신과 지속적인 후원활동,자원봉사자를 활동가로 키우기 위한 노력,대시민 홍보사업을 대탁과 함께 실시해야 한다.또 대·탁은 교사들끼리만의 조직에 급급하지 말고 자원봉사활동가들을 조직구도에 투여하고 대·탁의 내용성들을 알려내기 위한 소식지 발간,자봉 또는 탁아에 관심있는 타 단체들에 체계적 자료제시 및 교양을 통한 연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 대구지역 탁아소 연합회 가입 탁아소 연락처 ##########

디딤 아가방:563—7783　　감나무골 아가방:957—3926

배꼽마당:557—0419　　달구벌 탁아소:356—5669

♥♥♥♥♥♥대구경북지역 여성단체♥♥♥♥♥♥♥♥

여성단체 소개를 마치면서....

현재 있는 단체는 위와 같고 앞으로 더 만들어야 할 여성 단체가 있습니다.가장 급하게는 섬유직 중심으로 많이 종사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모임"이 필요합니다.어떤 여성들보다 많은 사회구조적 차별을 당하고 있는 우리 여성노동자들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차별을 함께하는 힘으로 극복해나가기 위한 모임이 무척 급히 요구됩니다.대구지역 여성 노동자는 섬유직 중심으로 많은데 작업장들이 다들 작고 열악하며 특히 대구가 보수적인 지역이라서 여성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모임들이 참 안돼 왔습니다.하지만 어려운 만큼 모임의 중요성이 더 크다 하겠습니다.이외에도 현재 존재하는 단체들도 보다 전문화되어야 합니다.먼저 단체들 각각이 일꾼을 더 많이 확보해야하며 운영의 전문화,다양화가 되어야 합니다.그렇게 될때 대구에서부터 평등한 사회를 앞당겨낼 수 있습니다.여학생회 활동에서 그치지 말고 졸업을 하고서도 지역의 여성단체들에 참여해서 자기가 할수 있는껏 길게,열심히 여성해방운동에 함께하는 우리 간부들이 되어야 겠습니다.

########## 지역 여성단체 연락처 ##########

대구여성회 대구시 중구 삼덕 1 가 22-9	421--6758
대구여성의 전화(애린회) 대구시 수성구 범어 2 동 128-1	742--1331~2
경북 여성농민회 류옥선 회장님 청송군 진보면 고현동	72--2169
이병술 총무님 고령군 우곡면 포 1 리	52--2598
함께하는 주부 모임	425--7701
대구지역 탁아소 연합회 소속 탁아소로 연락	
성대협 소속 단체로 연락	

♥♥♥♥♥♥윤금이씨 투쟁♥♥♥♥♥♥♥

1.저는 두 번 죽었습니다.

아직도 윤금이씨의 죽음을 두고 그렇고 그런 여자의 죽음쯤으로 생각하는 분은 없겠지요.윤금이,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윤금이 개인의 죽음이 아니며 또 다른 금이,바로 우리 자신입니다.그것은 많은 여성들이 윤금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습이며,또한 그런 속에서 미군 범죄가 자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윤금이는 가난한 집의 딸로 가난이 싫어 서울로 서울로 흘러들어오는 우리의 딸이며,그속에서 공장 여공으로,매춘부로,아메리칸 드림을 꿈구는 민족의 딸의 아픔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윤금이의 성장과정

고 윤금이는 1966년 10월 12일 전북 순창군 구림면 운남리 363번지에서 부 윤심근씨와 모 강공례씨 사이에서 5남 1녀 중 외동딸로 태어났다. 그녀는 위로 오빠 둘이 있으며 아래로 동생 셋이 있는 다복한 가정에서 성장하였다.그러나 지긋지긋한 가난과 아버지의 오랜 병환으로 인해 가계가 더욱 기울었으며 그녀가 17세 되던 해인 1983년 6월 11일 마침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다.이때를 전후하여 윤금이는 더욱 방황하게 되었고 가출을 시도하게 되었으며,세상 친구들과 사귀기 시작했다.결국 그녀는 집을 나와서 공장등을 전전하게 되었고,활달하고 가식없는 생활을 통해 여러 친구들을 사귀게 되엇다. 그러아 도저히 공장생활을 통해서는 금전을 모을 수가 없었고 또한 그녀를 나쁜 쪽으로만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없어서 그만두게 되었다.결국 갈 곳이 없는 윤금이는 자연히 환락의 세계로 끌리어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녀는 평택,안정리 등을 전전하면서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소위 양색시가 되었다.그러나 어느 한쪽에 묶여있지 않는 자유인이었다. 동두천으로 오기 전까지는 그녀는 평택에 있었으며 그녀가 잔혹하게 살해당할 것이라는 예감을 전혀 하지 못한 채 그녀는 92년 10월 동두천으로 오게 되었다.

##그녀의 죽음

1992년 10월 27일 그녀는 모 클럽에서 맥주 5병을 시켜서 혼자 마셨다. 그당시 표정은 무척 화가 나고 몸도 안좋아 보이는 상태였으며 그래서 더욱 빨리 취해가고 있었다.그런 상태로 그녀는 클럽을 나가서 미군 부대 정문쪽으로 걸어가다 부대를 무단외출한 케네스 마클을 만나게 되었다.그는 공수부대 출신으로 1972년생으로 미 2사단 1여단 20보병연대 5대대 본부중대 의무대 소속으로 의무병으로 복무중이었다.

그는 체격이 좋고 무척 키가 컸다.그는 윤금이양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이용하려고 그녀의 방으로 가기를 원했고 끌고가다시피 데리고 갔다 그러다 부대 고참인

램버트 상병을 만나서 서로 그녀를 차지하려고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목격자와 증인들이 생기게 되었다.결국 케네스 마클은 윤금이를 그녀가 거처하는 방으로 데리고 들어 갔으며 그녀와의 말다툼 끝에 콜라병으로 4번을 내리쳐서 그녀의 이마를 피로 물들이게 하였다.

이 때가 1992년 10월 28일 새벽 3시 15분경이었다.그녀는 결국 전두부 열창으로 인한 실혈사로 사망하게 되었고 그녀의 국부에는 범행할때 사용되었던 콜라병이 꽂혀 있었으며 한쪽 다리를 오무린 상태에서 우산대가 항문을 관통하고 있었다.

사체는 그날 오후 3시 이후에 주인인 김성출씨에 의해 발견되어 신고 하게 되었고 의정부 경찰서 강력계 형사 1부에서 사복형사 40여명이 동원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으며,30일 경기도 의정부 의료원 담당의사 이호철의 사망고 진단과 의정부 지청 검사 장낙환씨의 검시로 10월 30일 가족에게 인도되어,벽제에서 화장을 시켜 한줌의 재로 변하여 한많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2.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에 대한 우리의 입장

10월 27일 미군의 윤금이씨 살인사건을 보며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지난 40여년간 미군이 주둔한 이후 미군에 의한 살인,강간,강도,절도,폭행이 일상적으로 행하여지는 만성화된 현실 속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동두천 시민 뿐만 아니라 전민족적 분노로 폭발하고 있다.

지난 91년 개정된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에 따르면 미군의 범죄수사와 재판관할권은 한국측이 갖고 있으며 신병보호 역시 한국 경찰측에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찰 및 검찰은 살해 범인인 케네스 마클 일병의 신병을 미군측에 인도함으로써 수사 및 재판이 계속 지연되어 왔다.이에 우리는 한국의 검찰에 의한 수사와 한국의 재판부에 의한 재판이 이루어져 윤금이씨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살해범 케네스 마클에 대한 정당한 처벌,윤금이씨 가족에 대한 적정한 배상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함과 동시에,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본국으로 송환된다거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미국과 한국정부에 있음을 명시하며 다은과 같이 우리의 주장을 강력히 밝히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1.이번 사건은 전적으로 미군에 의해 한국여성이 피살된 사건인 만큼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수사권은 한국정부에 있다.우리는 한국 경찰과 검찰에서 윤금이씨 살해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가해자 구속 및 재판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진실은 공개되어야 하며,한국법정에 의한 재판과정 역시

공개되어야 한다.

3.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배상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수사권 및 모든 재판권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인 제도가 실현되고 발효되어야 한다.

##########################주한미군 범죄의 역사와 현실##########################

해방군의 이름으로 이땅에 미군이 주둔한 1945년 이후 87년 미군은 마약,강간,뺑소니,방화,살인,폭행,사기 등 약 10만 건의 범죄를 저질러 왔고,지금도 계속되고 있다.최근 외무부가 밝힌「미군 범죄의 연대별 현황 및 처리과정」에 따르면 지난 67년부터 87년 까지 주한미군 범죄는 모두 39.452건으로 범죄에 가담한 미군은 45.138명에 이른다고 한다.이는 해마다 평균 2천 2백명,하루 평균 8건의 범죄가 발생했음을 말해주고 있어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다.이중 강간과 강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강간피해 한국 여인은 100명이 훨씬 넘고 있으며,유형 별로 보아도 기차안,미군부대 안,야산,팀스피리트 훈련 도중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치욕'의 역사는 범죄의 처리과정에서 '굴욕'의 역사로 선명히 나타나게 된다.그 많은 범죄자 가운데서 지난 66년 한미행협정이 체결된 후 한국정부가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한 건수는 불과 0.7%에 지나지 않는다.이 같은 비율은 나토 32%,일본 32%,필리핀 21%의 재판권 행사와 비교할 때 한국의 대미 예속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원래 한미 행정협정이라는 것 자체가 불평등한 것이지만,이것 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는 현실이 더욱 큰 문제이었다.

그리고 재판권을 행사하여 범죄자를 한국 교도소에 수감했을 때도 범법자들은 수형 생활이라기 보다는 호화판 호텔 같이 꾸며진 감방에서 '휴양생활'을 즐겼다.그들이 수감된 수원 교도소엔 4.5평 넓이로 하얀 시트에 모포가 덮인 2개의 침대와 매트리스가 준비되어 있었으며 꽃까지 곁들인 책상과 걸상은 물론 소지품을 넣어두는 철제 캐비넷까지 마련되어 있었다.또한 56평 넓이의 부속건물에는 냉장고를 갖춘 취사장과 식당,목욕탕이 따로 있고 오락실까지 있어 감방이라기 보다는 호텔이라고 해야 맞을 정도였다.미 8군 당국은 이추악한 범법자들에게 하루 세끼 식사 모두를 교도소가 아닌 아양 미 38기병기 대대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배려해주기도 하였다.

이렇듯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게 별다른 조처가 없다는 사실은 미군으로 하여금 범죄심리를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되고 있으며,미군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보는 시각을 생각하면 민족적인 자존심에 크나큰 손상이 아닐 수가 없다.또한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역대 정권도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윤금이씨는 바로 이러한 미군 범죄의 현실속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밖에 없었던 사건이었다.

3.케네스 마클의 무기징역형 선고는 우리의 투쟁 결과이다.

92년 10월 28일 윤금이씨가 살해된 이후 동두천 시민들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분노의 불길이 일었고 투쟁이 있었던 결과,그리고 4차에 걸친 서울 법원에서 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보여주었던 분노와 투쟁의 의지가 있었던 결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었던 성과이다.이제까지는 미군범죄에 대해 아무리 잔혹하다 하더라도 10년형 이상 떨어진 적이 없었던 것이다.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여대협을 중심으로 윤금이씨 사건에 대한 지속적인 선전,가두-학내 서명 작업,공판 투쟁 참여를 열심히 해내었다.이러한 우리들의 투쟁에 의해 많은 시민 학생들은 미군,미국에 대한 기존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재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식민지 현실에 대해 깨닫게 되었고 반미 감정들이 고조되었다.

타 지역 여대협에서도 지역 총련과 연대하여 열심히 투쟁을 벌였다.이번 윤금이씨 투쟁을 통해 여학생회 단위에서도 정치 투쟁을 어떻게 받아안을 수 있는지 검증되었다고 본다.

4.윤금이씨 사건에 대한 글을 마무리하면서

그녀의 죽음은 한개인의 죽음만이 아니다.민족 주권의 죽음이요,민족 자존의 죽음이다.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산 금이.이제,다시는 이 땅위에 억울하게 희생되는 제 2의 윤금이가 나타나지 않아야한다.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사건이 마클의 무기징역형 선고로 만족하지 않고 미국 당국으로부터 공개적인 사과와 국가적 차원의 배상을 받을때까지 계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야될 것이다.

나아가서 현실적으로 여전히 대미 굴욕적인 상태로 있는 한미행협을 개정하고 더 크게는 주한미군을 이땅에서 철수 시키고 한반도에 분단을 걷어내고 조국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다.그렇게 될 때만이 이땅에 진정한 해방,독립이 이루어지게 되고 7천만 겨레의 자유로운 삶이 보장될 것이다.

이제 더이상 우리 자매들에게 돌을 던지지 말며,던지지도 말게 하자.그리고 하루빨리 통일을 위해 민족자주를 위해 온 힘을 모아보자.

♥♥♥♥♥ 함께 배우는 노래 ♥♥♥♥♥

내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날

내가 그대를 처음 만난 날 자욱한 최루 연기 넘쳐나던 날
그대는 빨간 머리띠 묶고 투쟁의 붉꽃을 높이 올렸네
아! 늠름한 그대 모습에 나도 따라 투쟁 전선 동지 되었네
아! 괜시리 설레는 마음 그대를 그대를 사모하나봐.
내가 그대와 손 맞잡던 날 지랄탄 연기속에 눈물 흘릴때
그대가 내민 빨간 손수건 지랄탄 연기를 날려 버렸네.
아! 자상한 그대 모습에 그대 손을 굳게 잡고 거리에 서네
아! 영원히 변치 않으리 거리에 피어나는 동지의 사랑
우리 소중한 동지로 살며 새날을 열어가는 젊은이라네
투쟁의 길에 밝은 빛 되리 우리의 청춘은 행복하여라
우리의 청춘은 행복하여라

딸들아 일어나라

어두웠던 밤 지나 새벽이
얼어붙은 땅 녹아 새싹이
케케묵은 낡은 틀 싹둑 잘라 버리고
딸들아 일어나라 깨어라
이 땅의 노동자로 태어나
자랑스런 딸로 태어나
고귀한 모성보호 다 빼앗겨 버리고
찬아왔던 그 시절 몇몇해
나가자 깨부수자 성차별 노동착취
뭉치자 투쟁이다 여성해방 노동해방

얄미운 미국

수입만 강요하면 만사땡이냐 얄미운 미국
수개방 때문에 애끓는 농민가슴 아픔만 주는 미국
농발쫑 만들어서 농민 내쫓는 얄미운 미국

미국때문인가 재벌 때문인가 고통만 주는 민자
병주고 약주고 겁도 주지만 우리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
끝까지 해봅테면 만껏 해봐라 아아 우리는 이긴다

여성 전사

남성 전사 산오를 때 함께 오르며
불철 주야 훈련하던 여성 전사가
총을 맨 모습이 너무도 당당하여라
아아 아아아 해방의 진달래 꽃 꽃
그대는 자랑스런 해방 조국의 딸이어라
흙가슴 열어젖히고 민족의 얼을 안고
혁명의 의지 불태우는 총을 맨 여성전사

굶은 일도 마다 않고 해방을 위해
전쟁 같은 투쟁 전선에 선봉에 서서
총을 맨 모습이 너무도 의연하여라
아아 아아아 해방의 진달래 꽃 꽃
그대는 자랑스런 해방 조국의 딸이어라
흙 가슴 열어 젖히고 민족의 얼을 안고
혁명의 의지 불태우는 총을 맨 여성전사

참사랑

바람 불어도 눈보라 쳐도 그대 당신은 내사랑
거친 손가락 못 생긴 얼굴 당신은 나의 참사랑
투쟁 속에 우린 만났죠 야윈 얼굴 서로 보듬고
우리 새 세상 만들 때 까지 우리 변치 말고 투쟁하자고
그대가 감싸주는 내 어깨에 어리는
뜨거운 그 온기는 노동의 꿈과 희망입니다.

♥♥♥♥♥♥♥♥♥♥함께 배우는 노래♥♥♥♥♥♥♥♥♥♥

포장 마차

닭 똥집이 벌벌벌 닭다리 덜덜덜 잔업 철야 지친몸 소주로 달래네
세상은 삐까번쩍 거꾸로 돈다네 제자리 찾아 간다네
비지 땀이 뻘뻘뻘 열나게 돌아도 윤논의 노동자 살림은
밥바닥이 박박박 닳도록 뛰어도 앞으나 서나 제자리
깡소주에 문어발 생맥주 노가리 오공비리 대머리 속이고 노가리
세상은 삐까 번쩍 거꾸로 돈다네 제자리 찾아 간다네

♥♥♥♥♥♥♥♥♥♥♥♥♥♥자료집을 마치며 한마디♥♥♥♥♥♥♥♥♥♥♥♥♥

제 4 기 대경 여대협 소속 각 대학 일꾼들 모두 만만세!!!

1920년대 여성운동 흐름 - 민족해방운동의 일환으로. 해방이후단절. 그러한 여성운동지속
1980년대 후반부터 진보적 여성운동의 시작. - 흐름

1. 진보적 여성단체 등장.
1. 여성운동의 이념 재정립
1. 민족적 현안문제에 적극적 지지내지 참여
1. 연대확장.

80. ~ 86. 여성평우회 - 여성운동이론 차이로 해체 86. 한국여성의 전화
86. 정치대책위원회. 중심으로 학생들 - 선배자의 연대의 틀 만들어 지기
87. 한국여성단체 연합 구성.
1. 여성 인권차별철폐 법제화
2. 여성 노동권확보

BANG BANG.

3.

대처하여 88. 1. 대학여성회
학생회 체계. - 대중성의 확보지향

89. 대중운동 체계로.
5. 함께하는 공부모임

여성학 88. 여성학 - 여성의 지위.
여성의 학문적 체계 성립단체.

90년대 시작 - 가족법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성차별성을 중심으로의 이슈.

90년대: [여성운동의 대중화.
대중화라고 하면서 세를 형성] 의 필요

1. 대중화 1. 여성단체 (현재 지향점) 의 조직체 필요. 운비를 확보하기 위한 조직체 필요
2. 재생산 여성에 대한 시각 조직화.
부분.

3: 가족주의 강화

2. 여성의 지위 시각화.

소속대학:

이름: